

“바르셀로나로 달린다!” 남녀 각 4체급 8명확정

92. 3.10-11 국가원



올림픽 참가 확대위해 체급제한

8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92바르셀로나 올림픽(팔라오블라우그라나 체육관)에 파견될 국가 대표 남녀 각 4체급, 8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올림픽에 보다 많은 국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체급을 제한한 세계연맹의 방침에 따라 한국은 각 4체급을 할당받았는데, 남자는 플라이, 페더, 웰터, 헤비급, 여자는 핀, 밴텀, 라이트, 미들급에 출전케 되었다.

'92대표최종선발전(91.12.26-28)에서 선발된

1, 2위자 2명씩 2체급 4명이 리그전으로 진행된 평가전은 높아진 대표팀 문턱탓인지 예년의 선발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남자부에서는 서성교(플라이) 김병철(페더) 하태경(웰터) 김제경(헤비)이 각각 3승을 거두고 선발되었으며, 여자부에서는 모선영(핀) 황은숙(밴텀) 정은옥(라이트)이 역시 3승으로 선발되고 미들급은 이선희, 정명숙, 박상희가 모두 2승1패 동률을 기록하여 재경기 끝에 이선희가 선발되었다.

한편 협회는 선수들의 효율적인 강화훈련을 위

해 1, 2위차 모두를 태릉선수촌에 입촌토록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120일간의 복수(復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경기에는 남녀 28개국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한국대표선수단은 7월18일 스페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가규모

국명	참가체급		참가지수	
	남자부	여자부	선수	임원
한 국	플라이·페더·웰터·헤비	핀·밴텀·라이트·미들	8	4
중화대북	핀·플라이·라이트	핀·페더·라이트	6	3
요 르 단	플라이·미들·헤비		3	2
이 란	라이트·웰터·미들		3	2
필 리 핀	플라이·밴텀	페더·미들	4	3
인도네시아	핀·플라이	핀·페더·라이트	5	3
호 주	핀·헤비	플라이·밴텀·미들	5	3
일 본	페더·웰터	플라이·라이트	4	3
네 팔	핀	핀·밴텀	3	2
뉴질랜드		웰터·헤비	2	2
미 국	핀·밴텀·라이트·미들	플라이·밴텀·웰터·헤비	8	4
멕시코	플라이·밴텀	핀·플라이·페더	5	3
캐 나 다	밴텀·페더·웰터	웰터·미들·헤비	6	3
칠 레	밴텀·라이트	밴텀·웰터	4	3
베네수엘라	플라이·페더	헤비	3	2
푸에르토리코	핀	밴텀·라이트·헤비	4	3
스 페 인	핀·밴텀·라이트·미들	플라이·페더·웰터·헤비	8	4
터 이 키	페더·미들·헤비	플라이·페더·미들	6	3
프 랑 스	플라이·라이트	밴텀·웰터	4	3
독 일	라이트·미들·헤비	라이트·미들·헤비	6	3
이탈리아	밴텀·페더	핀·플라이·라이트	5	3
그 리 스	페더·웰터	페더·미들	4	3
독립국가연합	페더·미들	페더·헤비	4	3
덴 마 아 크	핀·밴텀	핀·밴텀	4	3
유고슬라비아	웰터·헤비	라이트·웰터	4	3
영 국		핀·플라이	2	2
이 집 트	라이트·웰터·미들·헤비	웰터·미들	6	3
나이지리아	웰터·헤비		2	2
28 개국	64명	64명	128명	80명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92. 1. 31~2. 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대표선수단 명단

- ▲단 장:한재수(인천직할시협회 회장)
- ▲감 독:정만순(충북협회 전무이사)
- ▲코 치:권혁중(대한체육과학대학 코치)
- ▲주 무:이 봉(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남자선수

- 핀 급:진승태(경남체고)
- 플라이급:서성교(한체대)
- 밴텀급:권태호(경희대)
- 페더급:강창모(동아대)
- 라이트급:박의성(한체대)
- 웰터급:임영호(경희대)
- 미들급:윤순철(상 무)
- 헤비급:김제경(상 무)

▲여자선수

- 핀 급:이순영(고양중고)
- 플라이급:모선영(인덕공고)
- 밴텀급:원선진(효원고)
- 페더급:김성숙(성신여대)
- 라이트급:정은옥(상명여대)
- 웰터급:고재경(경기도협회)
- 미들급:이선희(대한체육과학대학)
- 헤비급:정명숙(혜성여고)



권혁중 대한체육과학대학코치
한국대표팀 남·여 코치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 모습

선수들은 맘을 많이 흘린탓인지 체중이 미달되는 선수가 나왔다. 이에 임원진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운동을 가볍게 마친 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점심 초청을 받아 김치와 불고기를 먹고 대사의 격려에 사기가 충만한 가운데 선수단은 필승을 다지며 호텔로 돌아왔다. 이날 2시부터는 대표자 회의가 있었으므로 임원진과 선수들 모두가 긴장된 모습이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세계태권도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태권도의 올림픽정식 종목 채택 문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8개국에서 175명의 선수 출전

아시아태권도연맹의 18개 회원국에서 남자선수 112명 여자선수 63명(총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1월 31일부터 올림픽축구 예선의 열기가 재가시지 않은 메르데카스타디움 옆의 네가라 실내 경기장에서 개막 되었다.

첫날 경기 금3 은1

〈남자〉

편집:진승태(경남체고) 은메달

진선수는 지난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90년 타이페이)인 대만의 張榮三(Chang Jung-Sam)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4:5로 석패하여 은메달에 머물렀다.

필승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태릉훈련원에서 합숙훈련

91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92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선발된 남·여 대표선수 16명은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곧바로 태릉 선수촌에 입촌하여 강도 높은 훈련과 코칭스텝과의 호흡을 맞추어 나갔다. 코칭스텝은 한달간의 짧은 훈련을 전문체력과 전술위주로 세부훈련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선수들은 우리선수와의 체격조건이 비슷하므로 스텝모션을 통해 특점을 올리고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짧은 합숙기간 동안 선수들에게는 기량과 병행하여 정신력배양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정신력이 부족하면 체력과 기술의 보완이 어려울뿐 아니라 여자팀 같은 경우 제9회 대회때 대만에게 우승을 빼앗긴 바 있어 희생의 분기점이 될것인지 주목되는 경기라는 점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전략을 세워 나갔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더위 때문에 체중미달선수 나와 긴장

1월 27일 김포를 출발하여 싱가포르에서 1박후 비행기로 40분정도 걸리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곧바로 Hotel Grand Olympic 호텔에 짐을 풀후 점심을 먹고 그후 훈련에 들어갔다.

기온은 33℃.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흘러내렸으므로 오후운동은 5시~6시까지 위밍업과 스텝터투기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선수들은 더위 때문인지 1시간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하여 30분 후부터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더위탓으로 호텔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단은 한국에서 가져간 쌀로 밥을 해먹고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오전운동은 10:30~11:30(개인운동) 오후 운동은 4:30~4:30까지 기술타켓트 발차기로 적응훈련을 했다.

플라이급:서성교(한국체육대학) 금메달

서선수는 앞서열린 진승태 선수의 판정패에 복수나 하듯이 인도네시아 Dick Richard를 일방적인 공격과 다양한 기술로 4:1판정승을 거두었다. 특히 서선수는 준결승에서 만난 대만의 林勇成을 8:0이라는 기록적인 스코어차로 승리하면서 발기술의 정수를 발현,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여자>

핀급:이순영(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금메달

이선수는 예선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선수를 가볍게 격고, 네팔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대만의 羅月英을 맞아 5:3의 판정승을 거두었다. 고양중고 2년생인 이순영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하였고 그 강점을 맞아 투혼을 발휘 한국선수단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플라이급:모선영(인덕공고) 금메달

첫 경기의 불안한 출발로 메달전망을 어둡게 했으나 결승전에서 대만의 湯惠雯(Tang Hul-Wen)을 맞아 치고 빠지는 진술이 적중 뜻밖의 5:2 대승을 거두었다. 한국체육대학에 진학한 모선영은 신장차이가 20cm 이상되는 湯의 허점을 과감하게 공격하여 첫 날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감했다.

둘째날 금3 은1개 추가

말레이시아 부수상을 비롯한 5천여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네가라 실라체육관에서는 2일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남자>

밴텀급:권태호(경희대학교) 금메달

권선수는 요르단의 후세인 마키(Hussin Markki) 선수를 맞아 6:1의 압승을 거두어 3년만에 두 체급을 올린 재기에 화려한 성공을 거두며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페더급:강창모(동아대학교) 금메달

강선수는 대만의 王明松(Wang Ming Sung) 맞아 1회전에 1:1의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2회전에 3점 3회전에 2점을 뺏은 등 다양한 발기술로 6:3의 대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박의성(한국체육대학) 예선탈락

박선수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한 탓인지 긴장감 속에서 첫경기에서 인도네시아의 프리하디에게 맥풀린 경기운영으로 4:5로 패하여 이변을 낳았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한국의 오일남 코치를 초빙하여 급격한 실력향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자>

밴텀급:원선진(효원고)금메달

원선수는 속격 대만의 陳美楊를 맞아 고전을 예상하였으나 과감한 선제공격으로 5:1의 압승을 거두었다. 원선수의 승리는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대만에게 뺏긴 한국 여자팀의 불안감을 말끔히 거두어 주었다.

페더급:김성숙(성신여대) 은메달

김선수는 20cm나 큰 대만의 俞昭晞를 맞아 서로 얼굴을 차는 혼전끝에 3:3 스코어까지 가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만의 우세승으로 판정, 은메달에 머물렀다.

라이트급:정은옥(상명여대) 금메달

김선수는 91년도 세계선수권 우승자답게 대만의 戚鳳蓮을 맞아 여유있게 우승, 한국여자팀의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마지막날 금3 은1 따내

<남자>

미들급:윤순철(상무) 금메달

미들급에서는 선수층이 두터워졌고 경기력이 향상 되었음을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출전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91년도 세계대회 우승과 아시아대회대표팀 주장인 윤선수는 준결승에서 이란의 압바사를 원발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2회 37초 만에 KO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여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모든 선수들의 모범을 보이며 우승을 안았다.

헤비급:김제경(상무) 금메달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한 김선수는 차분하게 매 경기에 임하면서 결승에 올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며 완숙한 경기운영으로 6:0 판정승으로 우승하였다.

종합순위

〈남 자〉

〈여 자〉

순위	국 명	금	은	동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국	6	1		1	한국	5	2	
2	대만	1	3	2	2	대만	2	4	
3	이란	1	1	4	3	말레이시아	1	1	1
4	사우디		1	2	4	필리핀			5
5	필리핀			2	5	인도네시아		1	1
6	인도네시아		1	2	6	호주			3

※ 점수제로 인해 은메달이 있어도 순위가 바뀐(남 5·6위).

웰터급:임영호(경희대) 금메달

임영호선수는 기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칭시스템을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예선전부터 이러한 기우를 떨쳐버리듯 승승장구하며 결승까지 진출, 대만의 劉祖蔭선수를 맞아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웰터급:고재경(경기도협회) 예선탈락

예선 첫경기에서 대만의 潘麗琪를 맞아 결승과 다름없는 접전을 펼쳤으나 4:4 동점에서 우세를 빼앗기면서 아깝게 예선탈락하고 말았다.

미들급:이선희(대한체육과학대학) 금메달

1만여명의 관중이 일방적인 응원을 보이는 가운데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Lau Choo Boon 선수와 결승전이 펼쳐졌다. 두 선수다 신장이 우수한데다 Lau 선수가 국내선수와 유사한 경기력을 갖고 있어 한국의 대표선발 결승전 경기를 방불케 했다. 다양한 기술로 득점을 주고 받던 두 선수는 결국 이선수가 5:4로 판정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헤비급:정명숙(혜성여고) 은메달

정선수는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Sarah Chang 을 맞아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에 국제대회에 처녀 출전한 탓인지 흔들렸고 사기가 오른 말레이시아의 Sarah Chang 선수 공격에 말려 6:6 동점을 만드는데는 성공 했으나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대표선수단 남·여 나란히 종합우승.

18개국 175명의 선수가 참가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92년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열린 3일간의 열전 끝에 남자는 금 6개 은 1개 여자는 금 5개 은 2개로 당초 목표인 남녀동반 우승을 달성 하였다.

특히 대만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한국여자 선수들은 기술과 정신력 등으로 분발하여 지난 90년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의 참패를 설욕했다.

끝으로 금번 대회는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공정함을 보여준 모범적 대회 였다고 생각되며 주최측에서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제 5 회 이란혁명기념 국제태권도대회

('92. 2. 13~15, 이란 반다르압바스)



이란 태권도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혁명기념 국제태권도대회'가 금년으로 5회를 맞이하며 이란의 최남단 반다르압바스에서 열렸다.

지난해 결프전으로 인한 불참으로 우리 한국선수단은 지난 90년 경희대선수단이 참가한 이후 2

년만에 다시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9개국 12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는데, 우리 한국(충남대팀)을 비롯해 이란4개팀, 스페인,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스, 카타르, 중화대북, 파키스탄팀이 참가했다.

선수단은 2월 11일 대전에서 한용석협회장으로 부터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여 종주국의 면모를 다시한번 과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김포를 출발하였다.

일본 동경과 중국의 북경을 경유하여 테헤란으로 향하는 장시간의 비행중에도 우리 선수단은 경량급 선수들이 체중조절을 위해 기내 식사조차 못하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지만, 지난 1회대회 부터, 3회대회까지 먼저 다녀간 대학팀(계명대, 동아대, 경희대)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안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내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6시30분, 이란시간으로는 밤1시에 테헤란에 도착한 우리는 마중나온 이란연맹 임원의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아침 여독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8시에 기상하여 짜여진 일정에 따라 훈련을 시작했다.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오전운동, 12시 30분까지 사우나, 14시까지 중식, 바로 이어 대표자회의에 들어갔다.

9개국 13개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우리팀은 비교적 순탄한 대진이 잡혔으나, 체중감량으로 고생하는 최경량급 핀급(정주철)이 마지막 날로 잡힌것이 안스러웠고, 또 각 팀의 경기력, 특히 이란4개팀의 경기력을 파악할 수 없어 다소 부담스러웠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한국의 날씨와 비슷하여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나 시합장소인 반다르압바스시는 3월에서 11월 사이의 기온이 보통 섭씨 45°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도시라고 했다.

다행히 테헤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간 반다르압바스시의 2월은 가장 지내기 좋다는 거울로서 우리의 초여름을 연상시키는 날씨였다.

반다르압바스시는 이란-이라크간의 전쟁으로 유명해진 호르무즈해협의 입구에 자리한 이란5대 도시중의 하나라고는 하나 생활정도는 극빈에 해당되는 이란의 유배지라고까지 현지 우리 교포들은 설명했다. 워낙 뜨거운 날씨 탓에 사람들이 보

■ 대표선수단명단

단장 : 김동건(충남대 교수)

감독 : 김종성(오정중 교사)

코치 : 장태운(충남대 코치)

핀급 : 정주철

플라이급 : 민경필

밴텀급 : 윤희준

페더급 : 이영준

라이트급 : 서재남

웰터급 : 황일선

미들급 : 구기정

헤비급 : 안성주(이상 충남대)

국제심판 : 김용길(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부위원장)

통 자기 나이보다 15~20살은 더 들어 보이곤 했다.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은 기후상 나태할 수 밖에 없고 모든 상가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2시간 정도만 개점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에서 이란연맹 사무총장이 이란의 태권도인구는 16만명에 달하고, 특히 각 시도팀중 반다르압바스가 최강이라고 소개한바와 같이, 실로 태권도의 열풍은 호르무즈해협의 뜨거운 해풍을 몰아낼 정도였다. 연일 1,500여석의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환호하는 이란국민들의 태권도에 대한 열광은 대단하였다.

첫날(13일)라이트급의 서재남, 미들급의 구기정 선수가 모두 우승하여 금메달을 따내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어 여러날 동안의 여정에 지친 우리 선수들에게 새힘과 새 기운이 넘치게 하여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둘째날 플라이급 민경필 선수는 스페인 선수에게 아깝게 패하여 메달권에서 벗어났고 밴텀급



한국이 단연 종합우승,
스페인이 2위, 주최국
이란이 3위, 태극기가 반다르압바스
실내 체육관에 높이 5번이나
게양될때 우리 선수팀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과
금지로 가슴이 뿌듯해움을
느낄수 있었다.

윤희준 선수는 무난히 금메달을 또 획득해 주었다. 페더급 이영준 선수는 긴 여정동안 계속되는 체중감량으로 많이 지쳐 있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타까운 경기를 펼칠 수 밖에 없었다.

기술면에서는 월등하였으나 결국 스페인 선수에게 지고 말았다.

세계날 핀급 정주철 선수도 계속되는 체중감량으로 몹시 지쳐 있어 선수단을 긴장시켰으나 한국인다운 정신력을 발휘해 끝까지 버텨 금메달을 따낼수 있었다.

웰터급 황일선 선수는 결승 1회전에서 안면 득점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2, 3회전에서 뛰어난 기술로 상대를 압도하여 금메달을 따내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한 헤비급 안성주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졸업식 참가도 못한채, 작은키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힘껏 싸워 만족할 만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3일간 총 8세급의 열전이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다.

한국이 단연 종합우승, 스페인이 2위, 주최국 이란이 3위, 태극기가 반다르압바스 실내 체육관에 높이 5번이나 게양될때 우리 선수팀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과 금지로 가슴이 뿌듯해움을 느낄수 있었다.

특히 경기 마지막날인 2월 15일은 단장인 김동건 교수의 45회 생일로 우리팀은 축제분위기를 만끽했다.

여러날의 긴장과 빠듯한 항공일정으로 쌓인 피로도 마침내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해냈다는 자부심에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끝으로 반다르압바스에서 우리 선수단에 음식을 비롯해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신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과 대회심판위원장으로 서투른 국제심판들속에서 고군분투하신 김용길 협회 심판 분과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태극간**

겨루기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습으로
치루어질
협회장기 대회,
태권도의 새장을
열 것으로 기대



서완석

(국민일보 체육부기자)

내게 있어서 태권도는 소년시절의 꿈과 같은 추억이 간직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국민학교 6학년때인 70년초 봄 누구의 권유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방과 후에 도복을 옆구리에 끼고 열심히 태권도장으로 향하던 기억만큼은 분명하다.

방학때는 새벽반에 나가 어른들 틈에 끼어 발길질을 해대고 체력훈련한답시고 혼자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던 기억이 새롭다. 친구의 가슴팍에도 못미치던 옆차기가 급을 달리할수록 얼굴로 머리위로 일취월장할때 당시 신문에 연재되던 무협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공연한 자만심에 속으로 우물거리기도 했다.

실제로 뼈를 단련시킨다며 가느다란 막대기로 정강이 뼈를 수없이 두드리던 어처구니 없는 사범을 만나 지금도 그 상처가 다리에 남아 있다.

꽤나 열심히었던 태권도 수련을 왜 중단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렵פות이나 마 생각나는 것은 중학생이 됐으니 그만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수련생 대부분이 국민학교 2~3학년생으로 대련 상대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것 같다.

또 한가지, 매일의 수련내용이 단순한 차기와 지르기 반복동작으로서 어린 학생의 흥미를 끝만한 충분한 재미거리가 없었던 점도 운동을 중단하게 된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일반인이 경험했듯 우리에게 태권도는 어릴때 재미삼아 조금 해보는 것이거나 군대가서 훈련 커리큘럼의 하나로 억지로 배우는 운동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무도인 태권도가 스포츠화 함에 따라 행하는 운동에서 관전하는 운동으로 변모해 일반인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진 느낌이다.

건강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외국의 태권도장과 달리 종주국의 태권도는 이처럼 무도인을 길러내지도,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하

우리는 중국인들이 아침운동으로 자기고유의 태극권을 수련하는 것을 자주 본다. 짧은 수련 경험이지만 태권도도 품새를 잘 고안하면 태극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서양 체조 이상으로 훌륭한 우리 것을 가질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권도는 20여년 동안 많은 태권도인의 노력으로 전세계 1백 20개국 이상에 태극기를 내걸었고 국내에서도 3천 5백개의 도장에 2백 50만 명의 수련생을 보유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이같은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태권도가 질적으로도 발전해 왔는가.

· 이에 대한 태권도 취재기자의 답은 극히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선 태권도의 과거·현재·미래가 담긴 협회의 행정이 아직도 고답적인 선수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점이다. 선수관리와 경기운영에만 매달려 있는 것만으론 태권도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태권도가 세계화를 위해 무도가 아닌 스포츠로 변신을 꾀하면서 경기중심적인 진화를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게임인 겨루기만 있는 것이 아닐진대 거기에 담긴 무도정신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아침운동으로 자기고유의 태극권을 수련하는 것을 자주 본다. 짧은 수련 경험이지만 태권도도 품새를 잘 고안하면 태극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서양 체조 이상으로 훌륭한 우리 것을 가질수 있다고 확

신한다.

바로 이점이 태권도의 미래까지 짊어진 협회가 해야할 일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각오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 행정의 문제점 말고도 사실 도장의 지도자들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그나마 열악한 우리네 운동여건 중에서도 전국에 3천 5백개나 되는 체육관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명감에 소홀한 점이 없는가 반성해볼 일이다.

도장이 지역사회의 체력단련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생활체육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는바대로 대부분의 도장은 어린이 중심이고 성인은 극소수이다. 그 어린이도 고학년만 되면 대부분 그만 두는게 현실이다.

과연 각 도장이 성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일선 사범은 이를 위한 연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시설 또한 성인의 발길을 가로막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적어도 도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리 내리려면 사우나 시설, 체력단련기구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당장 자본투여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많은 도장이 속셈학원이나 미술·음악학원 등과 연계,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시설투자는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듯 싶다.

최근들어 도장에 체력단련기구와 여성헬스클

태권도 생활체육대회는 기존의 각종 대회가 고도의 훈련을 쌓은 선수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일반인의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에 산재한 도장대항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회가 주목을 끄는 점은 기존 게임방식의 겨루기대회가 아니라 품새와 격파, 특기부분 및 사범창안품새를 겨루는 것으로 태권도대회의 새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립을 함께 운영, 종합운동센터로 꾸민 체육관이 늘어나고 있는것도 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주목하고 싶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울들어 고답적 태권도 문화에서 탈피, 태권도의 질적발전과 변화를 노린 움직임이 협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태권도 생활체육대회를 연내 개최하고 성인용 태권도 체조를 개발, 보급시킨다는 것이다.

태권도 생활체육대회는 기존의 각종 대회가 고도의 훈련을 쌓은 선수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일반인의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에 산재한 도장대항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회가 주목을 끄는 점은 기존 게임방식의 겨루기대회가 아니라 품새와 격파, 특기부분 및 사범창안품새를 겨루는 것으로 태권도대회의 새장을 열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태권도체조의 개발의욕도 높이 평가하고싶다.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 청·장년용과 여성용, 노인용 등 다양한 태권도체조를 개발한다

는 내용이다. 성인수련생을 위한 첫 시도로 환영할 만한 계획이나 체조가 세분화·다양화 할 경우 혼란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히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길수 있는 단일 체조를 개발하는 것이 보급에 유리할듯 싶다.

문제는 보급인데 체육청소년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전태권도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

태권도는 이제 발상의 전환기에 서있다. 청년기의 미숙한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든 태권도인의 역량으로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올림픽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일부로 태권도가 늘 살아 숨쉬도록 하기위해 모두의 역할을 결집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서완석

77년 경북고졸

81년 경북대 법대졸

84년 대구매일신문 입사

88년 국민일보 입사

생활체육 확대위해 무예경연대회 신설

남북 태권도 교류도 확대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17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92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91년도 사업결산과 9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협회는 92년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일선 도장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태권도를 국민 건강 스포츠로 많은 성인들이 애호하도록 새로운 태권도상의 정립을 위하여 신기술의 개발,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의 제패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며, 특히 250만 회원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예산액으로는 8억 9천 7백여만원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집행액 7억 8천 6백여만원보다 14% 증가된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대회예산비가 91년도 집행액 1억 5천에서 올해 2억 5천으로 약 1억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대회예산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생활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제1회 협회장기생활체육경연대회 개최와 동남아 순회시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 예산이 91년도에 2천 3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74% 증가되었는데 이는 체육협정에 의거 체육청소년부의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92년 4월경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순회시범단을 파견하여 해외 태권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협회가 올 한해동안 추진할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확대

제1회 협회장기 품새 및 시범 경연대회 신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을 대변해온 태권도가 무도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무도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활체육종목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시도로 시범경연대회를 신설하였다.

협회는 그동안 초중 고등부 및 대학 일반부로 나눠 체급별 우승자를 가려왔던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를 겨루기 방법에서 탈피, 올해부터 품새, 격파, 특기 부문 및 창안 품새부문 경연 방식으로 치루어지게 된다.

태권도가 가진 무도적 측면을 확대,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무도경연대회는 종전에 등록선수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선 도장과 각급학교, 혹은 독자적으로 품새를 익히거나 가르쳐온 수련자와 지도자들이 자격제한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새경연대회의 경우 저품, 저단자의 경우 품새를 시현함으로써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의 완벽한 습득을 거두고 고단자는 스스로 새로운 품새를 창안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기부문은 고난도의 발차기와 격파 등을 통해 스포츠를 떠난 무예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치고 붙는 겨루기에 익숙해 있는 일반관중들에게 무도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회에서는 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품새 경연의 경우 심판진이 현장에서 직접 점수를 게시토록 하고 격파의 경우 깨진 벽돌이나 나무판자의 숫자로 관중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권도체조의 개발, 공모

체육청소년부 지원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 개발, 의뢰하고 일선사범과 태권도학과에 공모를 하여 성인용(청, 장년, 여성)과 노인용 태권도 체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시도지부별 강습회 개최를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일선 도장의 성인 수련생 확보에 기여 하리라 본다.

2. 남북 태권도 교류

협회는 남북태권도 직접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체육청소년부 등 관련기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의 구체적 방향은 92년 10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 북한시범단의 초청 참관과 시범대회를 함께할 계획이다.

3. 해외 태권도 보급 지원

체육협정에 의거 체육청소년부의 사업추진에 참여하기 위하여 92년 4월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순회 시범단을 파견하게 된다.

4. 우수선수 양성 및 국제대회 제패

한국대표선수단은 92년 1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고 2월 이란에서 개최된 이란혁명기념대회에서 대진직할시 협회팀이 출전하여 역시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협회는 오는 8월에 개최될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경기에서도 세계정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올림픽 파견 국가대표선발전을 갖고 선수층에 입촌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5. 홍보 강화—홍보만화 제작

태권도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바 있는 협회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태권도 30년” 홍보만화를 제작한다.

태권도 만화는 태권도 역사에서부터 태권도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여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에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하여 태권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협회는 홍보만화를 덕성여대 산업미술과 교수이자 만화가로 활약중인 이원복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6. 시도지부 지원 강화

전국대회의 지방 개최를 유도하여 지방의 태권도 보급과 기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7회 대통령기대회를 오는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이미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이란혁명기념대회에 매년 지방의 대표팀을 출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전시 대표팀이 출전한 바 있다. **EN 21**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위해 다각적인 노력 다할 것”



• 최원영

1954년 7월 1일생

1973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7년 미국 뉴욕주립대학 경영학과 졸업

198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0년 영국 캠브리지대학교(국제정치학석사) 졸업

현재 월간「객석」, 「시사저널」, 「TV저널」 발행인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

(예원학교·서울예술고등학교)이사장, 학교법인 경원학원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이사장

지난 1월 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 태권도 연맹 정기 총회에서 주간 시사저널 발행인 최원영씨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이 불투명한 가운데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오는 4월에 종목결정에 관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태권도계는 아시안게임의 태권도정식종목 채택이라는 큰 사안을 앞두고 신임회장을 맞아 그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취임 소감은

한국인의 긍지를 살릴수 있는 스포츠는 한국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민족문화의 한 맥락이라고 보며 이를 널리 보급,발전시키는 것도 세계속에 우리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미력이나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가 갖고있는 우수하면은 무엇이라고 봅니다

태권도는 스포츠적 가치관과 미술적 가치관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태권도 수련의 목적이 남을 공격해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극복의 고결한 태도에 있으며 자기 중심적 삶을 뛰어 넘어 인간 생활에의 광범위한 적용력을 높이는 정신수련이나 인격도야 등이 태권도가 가지는 무도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아시아 태권도연맹의 당면과제는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채택이라고 봅니다. 아시아 태권도의 중추기관으로서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회원국은 36개국인데 이중 ATU(아시아 태권도연맹)회원국이 28개국으로 아시안 게임의 스포츠종목 중 태권도는 가장 많은 회

원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즐기는 태권도의 채택은 올림픽정신과도 합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86서울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 90북경아시안게임 종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목의 선정권한은 사실상 대회조직위원회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 결정에 대한 OCA총회가 오는 4월 22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됩니다.

OCA는 아시안게임 개최 2년전까지 종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태권도가 채택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된다고 봅니다.

아시아태권도 연맹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의 강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고유 무술인 우슈가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히로시마조직위측에 강력히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측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전 태권도계가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신임 회장을 맞은 아시아연맹이 더욱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진**

페어플레이 정신



고두현

서울신문 체육부기자

- 1935년생
- 58년 한국해양대학 항해과졸
- 60년 서울신문사 입사
- 체육부차장, 주간스포츠 부장, 편집위원(부국장급), 체육부장(국장급)역임
- 현 체육부기자(국장급)

어느 경기종목이 올림픽의 정식종목이나 아니냐는 그 경기종목이 지니고있는 교육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올림픽이 온세계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매우 큰 영향력 때문에 올림픽종목이 아닌 경기종목들은 거의 모두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것이 오늘날 국제스포츠의 실정이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 '92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시범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중국의 쿵후,일본의 가라데 등 유사종목을 앞지르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셈이다.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서 채택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올림픽을 중심으로 모든 스포츠의 근본적인 존재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페어플레이정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84년 10월 14일의 일이다. 순간풍속 15m의 돌풍이 불어닥치는 일본 「가나가와」현 「에노시마노오끼」바다에서는 64도오쿄올림픽의 요트경기,플라잉더치맨(FLYING DUTCHMAN)급의 레이스가 치러지고 있었다.레이스의 고비가 되는 제3마크 근처에서는 강풍에 시달리면서 14개국의 요트들이 고전하고 있었다.

선두 그룹에 끼어서 마크를 둘러던 호주 요트의 두사람 가운데 윈터선수는 강풍에 흔들리는 요트의 경사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요트밖에 내밀어 분전중이었다.그러나 어떤일인지 별안간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차하는 사이 윈터선수는 물에 빠지고 거친 파도사이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호주 요트는 그대로 1백m가량을 치달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윈터선수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동료 다우선수가 마스트에 매달려 윈터선수의 모습을 찾았다.그러나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파도의 오르내림이 심해 그 끝자리에 빠져 있을 윈터선수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실사 눈에 띄었다해도 거의 뒤잡혀가는 호주요트 윈터선수를 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때 마침 제3마크에 다다른것이 스웨덴요트였다.

『페어플레이란 스포츠의 기본적인 가치다.
 페어 플레이야말로 스포츠 그자체이며 페어플레이
 없이 스포츠는 존재할 수가 없다.
 페어플레이는 인간의 성실과
 관용의 정신, 기회균등을 존중하는 정신의 표현이다.
 페어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비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참된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스웨덴 요트에는 요트선수 경력 18년에 플라잉 더치맨급의 스웨덴 챔피언인 키엘형제가 타고 있었다.

키엘형제는 파도사이로 보일락말락 하는 윈터 선수를 발견했다.

두사람은 곧 레이스를 중단하고 1백m나 되돌아가서 윈터선수에게 밧줄을 던져 주었다.

구조를 마친 뒤 키엘형제의 요트는 다시 레이스에 참가했으나 윈터선수 구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린 바람에 12위에 그치고 말았다.

뛰어난 선수에게도 일생에 한차례 돌아올까 말까하는 올림픽경기에서 아무리 사람을 구하기위해서 라고는 하나 자신의 경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훌륭한 행위를 보도한 신문은 「인간의 금메달」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키엘형제는 『바다에서의 조난사고를 발견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구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다의 사나이』의 도리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제10회올림픽 대회식에 영국의 로드 벌리는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4년전 암스텔담에서의 제9회올림픽에서 육상4백m허들의 우승자인 벌리는 이미 나이가 27살이

었기 때문에 대회식에서 오랜시간 서있으면 피로가 쌓여 경기에 지장을 가져올까봐 대회식에는 빠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선수촌 식당에서 동료 가운데 한사람이 내뱉은 한마디에 벌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회식 때 미국팀의 기수는 테일러다」 라는 말이 벌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테일러와 벌리는 지난 두차례의 올림픽에 출전, 한차례의 올림픽에서는 같은 종목에서 겨룬 말하자면 라이벌인 셈이다.

8년전 파리에서의 제8회 올림픽에서는 테일러가 4백m허들에서 우승 했고 벌리는 110m허들에만 나가고 4백m허들은 기권했다.

4년전 암스텔담 올림픽 4백m허들에서는 벌리가 우승했고 테일러는 3위였다.

4백m허들의 지난대회와 지지난대회 우승자끼리의 대결은 적지않은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벌리는 참가조차 하지 않으려는 대회식에 테일러는 무거운 국기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었다.

「대회식에 빠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다. 그결과 설사 내가 이긴다고 해도 진정한 뜻의 승리는 아니다. 대회식에 나가더라도 무거운 국기를 든 테일러보다는 유리하지 않은가」

대회식 다음날 치러진 4백m허들에서는 아일랜드

드의 티스달이 우승했고 테일러가 3위로 동메달이었으며 벌리는 4위로 메달조차 따지 못했다.

그러나 벌리의 표정은 밝았다. 땀뻑하게 싸웠다 는 보람 때문이다.

이 벌리가 뒷날 국제 육상경기연맹회장이 된 역 제터경의 젊은날의 모습이다.

우리 인류가 올림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페어플레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첫대회를 연 올림픽이 두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꾸준히 명맥을 지켜올 수 있었던 까닭은 온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정신에 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림픽헌장은 제1장「근본원칙」제1조에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라고 밝히고 있다.

▲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향상을 꾀한다.

▲깊은 상호이해와 우정에 의해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좋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온세계에 올림픽정신을 넓힘으로써 국제 친선을 도모한다.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의 큰 제전인 올림픽경기대회에 온세계의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

결국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이해하고 우정을 다짐하는 교육의 마당이며 평화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의 창시자 꾸베르탕남작이 바랐던 것과는 달리 올림픽은 창설되어 여러가지 말썽을 일으켜왔다.

특히 참가국 선수들이 처음으로 자기네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한 1908년의 런던올림픽은 그때까지의 올림픽 가운데 가장 조직화된 올림픽이었으나 동시에 그조직화가 내셔널리즘을 유발해 올림픽정신을 짓밟고도 승리를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꾸베르탕남작을 실망시켰다.

여러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인트

폴성당에서 올림픽참가자를 위한 미사가 열렸다.

특별설교를 맡은 켈실바니아주교는 「이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다는 일보다 참가했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말을 듣고 있던 꾸베르탕남작은 매우 감동해서 올림픽 폐회식이 끝난뒤 정부 주최 만찬회에서 인사말을 할때 켈실바니아 주교의 설교를 인용하고 거기에 덧붙여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올림픽 정신을 설명했다.

이말은 뒷날 1932년 로스엔젤레스의 제10회 올림픽에서 경기장과 선수촌에 게시되어 올림픽 격언으로서 유명하게 되었다.

1952년 헬싱키에서의 제15회 올림픽 부터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참가하면서 올림픽에서의 메달획득을 통한 국위선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이제 올림픽은 참가만으로는 뜻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드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오로지 이기기위한 거름의 마당으로만 올림픽은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올림픽이 시들어 버린 것은 오로지 개인이 이기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은 제1장「근본원칙」제1조에 올림픽운동의 목적을 들면서 그 첫머리에 「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향상을 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나타내야 할부분이 바로 도덕적 자질이다.

1894년 파리의 스포츠 국제회의에서 꾸베르탕남작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스포츠는 다루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익도 주고 해악도 준다. 스포츠는 고귀하게 될 수도 있고 비천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을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공명과 의욕에 사로잡히게도 만든다.

인간을 기사처럼 만들기도 하고 퇴폐로 이끌기도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도 하고 야수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전쟁의 준비에도 이용된다.

스포츠에 의해 키워지는 고결한 사고, 명예의 예찬, 기사도의 정신,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과 힘찬 행동,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체제가 왕정이건 공화제이건 간에 근대 민주주의의 첫번째 요건인 것이다。」

스포츠는 덮어놓고 무조건 좋기만 한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하지만 꾸베르탱남작이 지적한대로 근대 스포츠는 매우 위험한 측면도 지니고 있다.

오로지 이기기위해서만 인간이 힘을 기울일 경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야비한 면이 그대로 그 거름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축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정한 규칙이 생길 때까지 험하고 거칠하기만 했던 스포츠 였다.

동네와 동네 사이의 논과 밭, 그리고 강과 들이 모두 경기장이었다.

따라서 골과 골 사이가 몇 km씩이나 떨어져 있었고 몇백명이 하나의 공을 쫓아 다녔기 때문에 사상자가 끊이지 않았다.

제임스 1세는 축구가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고 해서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 였다.

축구가 오늘날 온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로 성장하게 된데에는 영국의 퍼블릭 스쿨인 럭비교의 토머스 아놀드 교장의 공이 크다.

1828년에 취임한 아놀드교장은 아마 고전적인 교육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교육자일지도 모른다.

아놀드교장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를 영국의 신사도와 묶어 페어플레이를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꾸베르탱남작도 영국에 갔을때 아놀드교장이 기독교와 체육을 교육의 두

오늘날 선진각국이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가 체력강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국기심과 협동심 양성, 규칙을 지키는 질서외식 함양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둥으로 삼고 있는 데 크게 감명을 받아 근대올림픽의 창시를 꿈꾸기에 이른다.

결국 올림픽도 스포츠를 통한 정신교육인셈이다.

스포츠를 통한 정신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1964년 유네스코는 페어플레이상 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정식명칭은 '올림픽의 창시자인 꾸베르탱 남작을 기려서 「베일 드 꾸베르탱 인터내셔널 페어플레이 트로피」다.

유네스코는 이 페어플레이상을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페어플레이란 스포츠의 기본적인 가치다. 페어플레이야말로 스포츠 그자체이며 페어플레이 없이 스포츠는 존재할 수가 없다.

페어플레이는 인간의 성실과 관용의 정신, 기회균등을 존중하는 정신의 표현이다.

페어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비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참된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또 유네스코는 1978총회에서 「체육, 스포츠 국제헌장」을 채택했고 제1조에 「모든 사람들은 인격의 전면적인 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스포츠와 가까이 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스포츠가 단지 건강이나 체력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균형 잡힌 전면적인 인간의 발달에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페어플레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부조리 예컨대 부정선수, 부당한 스카우트, 경기장에



▲강의중인 고두현 기자

스포츠나 체육관계자들은
페어플레이를 숭선수범 함으로써 온
국민의 의식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특히 정신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무도인 태권도 관계자들의
노력에 크게 기대하고싶다.

서의 난동 등이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을 망각한데
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성균관대학교의 이상일교수는 「겨루는 스포츠
는 인간의 원초성과 결부되어 있고 자연 그것인
반면에 본능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만 겨룰 때 인간들은 그들
이 지니고 있는 모든 야비한 면을 드러낸다. 도덕
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때 스포츠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권모술수적인 측면만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선진각국이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국민
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가 체력강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극기심과 협동심 양성, 규
칙을 지키는 절서의식 함양 등에 도움을 주기 때
문이다.

이제 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 특히 도덕적 자질
에 미치는 스포츠의 영향을 진지하게 재평가 할때
다.

페어플레이정신이 체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
회에 널리 퍼진다면 아마도 부정입학, 부정선거,
탈세, 부당한 투기 등 갖가지 부조리가 자취를 감
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페어플레이정신은 모든 분야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에 연결되고 그 질서확립은 사회와 국가의 안
정된 발전을 약속한다.

'88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난뒤 우리들은 올림
픽정신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빨리 자취를 감추
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볼때 우리는 올림픽을 유
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 자체만을 보기 좋
게 화려하게 치르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올
림픽정신 나아가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땅에
심는 노력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스포츠나 체육관계자들은 페어플레이를 숭선수
범 함으로써 온 국민의 의식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특히 정신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무도인 태권도 관계자들의 노력에
크게 기대하고싶다. [한인]

현장과 화제



- 경희대 ·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학생회
“태권도에 대한 이론과 기술연구가 외국으로부터 역수입될까 염려”
- 부산 명덕국민학교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
- 인천 구월중학교
US오픈 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차지
- 광주 상무중학교
태권도 명문중학교로 발돋움
- 충남 푸른체육관
“내일의 푸른꿈”을 실현하는 도장

“태권도에 대한 이론과 기술연구가 외국으로부터 역수입될까 염려”

경희대,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학생회



▲ 두 대학 태권도학과 학생회 임원들(우측 끝에서부터 대한체육과학대학 학회장 박장기, 경희대 학회장 정찬문)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 태권도가 대학의 전공학과로 개설된 것은 10년전.

1981년도에 대한체육과학대학에서 태권도학과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1983년도에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에도 태권도학과가 개설되면서 유능한 태권도 지도자 배출과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 이론과 기술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태권도학은 대학의 태권도 전공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장차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들의 오늘의 모습을 담아보며 내일의 태권도를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8대 학생회 3월 19일 출범식

경희대 태권도학과 학생회(학회장 정찬문)와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학생회(학회장 박장기)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시각에 수원과 용인에서 각각 제8대 학생회 출범식을 가졌다.

경희대와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회측에서는 올해의 주요 학회 활동 중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제1회 경희대·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이다.

오는 4월 2일 대한체육과학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과학대학 500명여명의 재학생과 경희대 160여명의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대학 시범단의 시범 교류를 비롯하여 축구, 발야구 등을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태권도 제반 문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여 태권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91년도 7대 학생회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올해 그 결실을 보게 된 태권도 시범 및 체육대회는 올해 대한체육과학대학에서 주최함에 따라 내년도 대회는 경희대에서 열리게 된다. 두학교 학생회측에서는 앞으로 계속 대회를 개최하며 두 대학간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전산관리 시스템” 도입위해 자료수집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학생회에서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신상과약 및 각종 스포츠 정보와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산관리 시스템에는 학생들의 무리(단), 타종목 자격증 여부 등 학생의 신상과약은 물론 각종 체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권도학

과 졸업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취업소식 및 각 취업분야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또한 학문분야에서도 각종 태권도 및 체육관련 학문의 정보 및 각 대학원의 선발요령, 교수진 등을 파악, 학생들의 대학원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 도입은 8대 학생회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학생회측은 전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동문 및 각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찬조를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비용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그만큼 자료수집도 큰 업무가 아닐 수 없다.

학생회에서는 이를 위해 여름방학기간 중 학교 및 각 대학 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며 전국의 시도지부에도 자료를 요청하며 지방의 학생들을 동원, 직접 자료수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회에서는 올 한해를 자료수집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경희대 “태권도학과 출신 선배 도장과 재학생간의 교류 실시”등 태권도 홍보에 솔선수범할 계획

경희대 학생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중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찾아가 태권도 시범 및 태권도지도를 통해 태권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서자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학과 시범단에서는 송파값만 제공된다면 전국 어디든지 가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태권도 시범단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태권도 시범단은 그동안 대학로 등에서 시범을

보인 바 있으며 각종 태권도 대회 식전, 식후 행사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왔다.

올해는 경희대 축제 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줄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태권도의 사회체육으로서의 확산에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학생들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에 관심 커

경희대의 학문 씨클로는 “선배”를 들 수 있다.

“선배”란 고구려 시대에 벼슬을 하지 않은 학식 있는 무사 단체를 말한다. 신라의 화랑도에 영향을 주었고 주로 태권을 수련한 단체였다.

선배는 태권도의 전반을 뒷받침 할만한 이론적인 학문을 연구하여 그동안 통권6호의 선배지를 발간하였다.

경희대 태권도학과는 올해 200페이지에 달하는 학술지 창간호를 낼 계획이다. 또한 태권도의 이론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생 차원이 아닌 학교 차원의 “태권도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를 학교측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학생들간에는 영어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는 등 태권도학과 학생들간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배” 팀에서는 태권도 학과 재학생중 장학금 수혜자의 일부 임출과 기타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태권도 관련서적 및 교양 서적을 학회실에 마련, 학생들에게 대부해주고 있다.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에서는 태권도학회 신문을 발간해 왔고 학술지로 “무예수지”를 통권4호 까지 발간해 왔다. 학생들간에는 학회 학술연구회를 조직, 태권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들 품새 창안 경연대회에 관심 커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의 졸업시험 과목

중에는 창안품새 발표회를 갖고있다. 그동안 학생들간에는 이러한 졸업 태권도 시범 발표회가 1회성으로 끝나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회는 오는 12월에 대한태권도협회창기 품새 및 시범 경연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에 졸업생들이 창안한 품새 및 재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품새가 이번에 개최될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태권도학과 재학생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관심 높아

한편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학문탐구의 방향에 대해 관심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막막한 현실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많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지않기 때문이다”며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전산관리시스템과 경희대학생회의 선배도장과의 교류는 바로 재학생들의 진로와도 상당히 밀접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학과 교과목중에 도장경영학이나 아동심리학개설 원해

학생들은 현재의 태권도학과 커리큘럼에서 태권도 품새의 세분화된 교육보다는 졸업후의 도장 개설이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수련층이 대부분 유소년층 중심임을 감안해 선재 교과목 중 아동심리학이나 도장운영의 효율성을 띄우기 위하여 도장경영학 등이 개설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전산관리시스템과 경희대학생회의
선배도장과 교류는 바로
재학생들의 진로와도 상당히
밀접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쇄신할 발상의 전환 필요

한편 태권도가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학에 태권도학과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등 태권도 관련 연구서적이나 잡지가 중주국인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발간되는 등 태권도에 대한 연구나 기술이 오히려 역수입될 우려마저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이러한 원인으로 태권도계가 태권도인들의 심사비를 갖고 태권도 행정이나 운영을 펴왔지만 사실상 태권도 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미국, 스페인 등 유럽의 태권도 강대국등에서 단종 자체발급을 건의하는 문제로까지 나오는데 대해서 태권도계가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쇄신할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태권도 메카를 자부하는 국가원의 시설미비로 "태권도경기시 선수들이 얼마나 몸을 풀고 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며 단일한 태권도계 집행부 임원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 학생은 미국의 태권도 수련생 집을 방문했을때 서가에 꽂혀있는 수 많은 태권도 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자료 발굴 및 태권도 일반 수련생에게 보급할 수 있는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에 동시간해온 한국 태권도계의 실상에 대해 비판했

다.

그밖에도 학생들은 사회체육학과 졸업생의 경우 바로 2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이 주어지나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은 도장개설에 필요한 3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과 교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등을 다시 15일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한것은 태권도 집행부가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때문에 체육청소년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도장설립 거리제한 철폐요구

또한 태권학과 졸업생들은 시도별로 정해진 300내지 500미터 거리제한 때문에 태권도장을 설립할 자리가 없을 뿐더러 장소를 확보해온 기성세대들이 "여기는 내구역"이라는 식의 단일한 도장운영으로 태권도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타 사설학원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특히 성인 태권도 수련층의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체육관의 시설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도장의 대형화, 고급화, 철저한 무도정신을 심어줄 지도자의 지도력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가야 앞으로 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권]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

꿈나무를 가꾸는 부산 명덕국민학교



▲김동열사범의 구령에 맞추어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

금정산의 푸르른 품에 싸인 부산시 화명동 주공아파트촌에 위치한 명덕국민학교는 60학급에 전교생이 2,900여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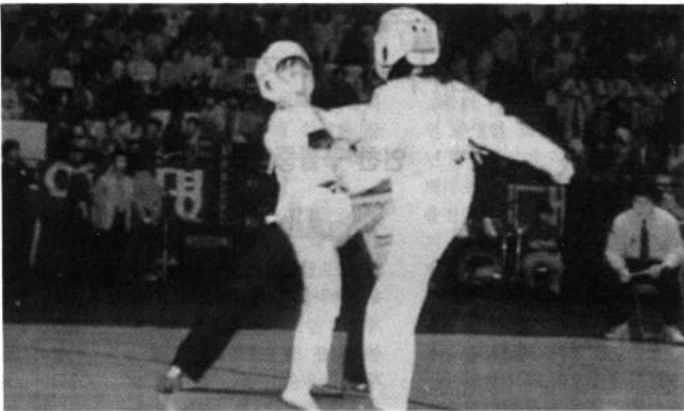
“스스로 공부하여 튼튼하게 자라자”라는 교훈아래 학교교정에는 오늘도 태권도 수련의 함성이 금정산성을 메아리 치며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물에 여울

을 이룬다.

명덕국민학교의 배용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태권도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심으로 태권도부를 창단, 전교생에게 태권도 수련을 연마토록하였다.

1991년부터 국기인 태권도를 명덕국민학교 교기로 삼아 김동열 사범(화명체육관장)의 열의 있는 지도력과 봉사정신으로 어

▶ 태권도부 어린이들은 지난해 부산국민학교 대회에 출전해 6명이 우승하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교장 : 배용호



지도사범 : 김동열

린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주 1회 실시되는 전교생 태권도 수련시의 함성은 이곳 아파트촌이 뒤흔들리다시피하고 있다.

태권도부 학생들은 교내학습 활동이 끝나면 학교에 인접한 화명태권도 도장으로 달려가 저학년에서 고학년 순으로 지(知)와 기(技)를 겸비한 태권도 수련에 여념이 없으며 흰도복 차림의 귀여운 꿈나무들이 땀을 흘리며 기를 딱고 있는 모습은 귀엽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며 대견스럽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이곳 동부교육구청과 부산 국민학교 태권도대회에서 체급별 6명의 우승자를 배출하였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유품·단자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건강한 체력과 기상은 어느

청년에 못지않으신 배용호 교장 선생님은 항상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요, 우리학교의 교기라고 역설하며 어릴때부터 태권도를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학생들에게는 늘 "마음과 정신 지혜와 기능 즉, 지 덕 체를 겸비한 넓은 도량,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연마해야 태권도인이 되는 것이며 기를 닦기 전에 도를 닦아야 바르게 들고 보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항상 겸손하고 봉사하는 행동이 태권도 정신"이라고 말씀하신다.

태권도를 김동열 지도사범은 학교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오늘도 열과성을 다하여 태권도 지도에 여념이 없으며 부산의 태권도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요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US 오픈 태권도대회에서 종합우승차지

인천 구월중학교 태권도부

인천구월중학교 태권도부가 미국에서 열린 『제1회 US오픈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면모와 내고장 인천의 명예를 드높여 체육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3개국 2백 50여명의 선수가 참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올림픽센터에서 10세급에 걸쳐 각국 선수들이 자국의 명예와 자신들의 힘과 기를 겨룬 이번 경기는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구월중학교는 이대회에서 선전분투 총 10세급중 슈퍼헤비급을 제외한 9세급에 출전, 8세급 석권과 더불어 은1 동3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미국 콜로라도주 시민은 물론 대회에 참관한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 82년 창단된 구월중학교 태권도부는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과 선수·감독의 호흡일체로 88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창단후 비로소 두각을 나타낸

88년도 인천협회장기에서는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이를 계기로 강도높은 훈련을 쌓아온 선수들은 89년에는 인천협회장기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올리며 중앙무대로 진입했다.

90년 청소년부장관기 준우승에 이어 지난해 제2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 중등부 최강을 자랑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선수지도를 맡고있는 김규현 감독(38)은 『교내 체육관이 없어 인근 사설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 약조건이었다』며 『이를 극복하고 이번 US오픈태권도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피력했다.

또 이 대회 선수 인솔을 맡은 안대균 단장(청보산업대표)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시야가 넓어졌다』며 『선수들의 기초체력보강, 기술보강훈련, 체중조절 그리고 현지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훈련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토록 노력한 이화현 코치의 지도력이 좋은 결과를 낳게했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했다.

전교생 태권도 유단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구월중학교는 선수들이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전 1시간의 개인연습과 방과후 3시간의 계획있는 훈련을 바탕으로 올 전국대회에서 중등부 천하통일을 노리고 있다.

US오픈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구월중학교 태권도 대표팀은 다음과 같다.

▲단장:안대균(청보산업대표)

▲감독:김규현

▲코치:이화현

▲선수:

강찬규(2년) 슈퍼핀급-금

이순태(3년) 플라이급-금

이상철(3년) 밴텀급-금

김차성(3년) 페더급-금

이인식(3년) 라이트급-금

최태호(3년) 웨터급-금

문대성(3년) 미들급-금

서현석(2년) 헤비급-금

최상욱(1년) 슈퍼핀급-銀

이인철(3년) 라이트급-銅

박상규(2년) 라이트급-銅

김용규(만수중3년)

라이트급-銅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각종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태권도 명문중학교로 발돋움

광주상무중학교 태권도선수단

'93년도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가 개최되는 광주에 위치한 상무중학교 태권도 선수단을 찾았다.

광주소년체육의 침병인 상무중학교는 배구, 복싱, 태권도 3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의 환경개선 시범학교로 이름이 나 있다.

1988년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해 광주권 태권도의 한 뿔을 해내고 있다.

올해 졸업생을 고려고등학교 태권도부로 진학시킨 상무중 태권도부는 매일 전 학과의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2시간의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지방 체육인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팀이다.

특히 태권도부 육성에 헌신적인 우영언 교장 선생님이 1989년 부임하시어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로 올해는 11개 전체급을 출전시켜 각 체급 석권을 노리기 위해 흑한속의 동계훈련에 맘을 흘리고 있다.

태권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원 선생님과 지도하고 있는 문병영(전남체육관 13도장 관장) 코치는 조선대학교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선수 육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와 태권도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상무중학교 1.2학년 특별 활동시간과 체육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무료로 수련시켜 2학년 말에 78명의 유품자를 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78명의 유품자들에게 품증을 수여하면서 우영언 교장 선생님께서 태권도 수련이 청소년 교육에 꼭 필요한 체력은 물론 올바른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여 유품자가 되어 능률한 모습으로 앞에 서게된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격려하였다.

한편 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상무중 태권도에 관심있는 독지가의 협조와 학부모의 후원이 첨가 된다면 한국 태권도의 명문학교로 발돋울 수 있으리라고 내다본다.

〈광주 윤웅서 편집위원〉



교장 우영언



▲태권도부 학생들과 이성원지도교사(왼쪽), 문병영코치(오른쪽)

“내일의 푸른 꿈”을 실현하는 도장

충남 푸른 체육관



서인원 관장

생활체육확산에
이바지하고 지역태권도
저변확대에 공이크며
모범적으로 도장을 운영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표창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 소속된 많은 도장들 중에서 태권도 지도를 통해 생활체육확산에 이바지하고 지역태권도 저변확대에 공이크며 모범적으로 도장을 운영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표창을 받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푸른체육관을 찾았다.

“내일의 푸른꿈”을 실현시킨다는 취지로 체육관명을 푸른체육관이라 지었다는 서인원 관장

(6단)은 88년 국제심판자격증을 획득, 89년 제3회 월드컵(이집트)국제심판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푸른체육관은 충청남도지정 청소년취미생활 지정교육기관으로 91년 12월 도지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1년 3월에 개관한 홍성푸른체육관은 지금까지 2천여명의 수련생과 연간 300여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서인원 관장은 체육관 운영 외에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부인 김희숙씨와 함께 컴퓨터학원, 소라아동미술학원, 선아속셀·웅변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관장의 형님인 서성원(광천고, 광흥중 새마을과장겸 체육교사·전충남협회 감사)도 태권도 6단의 고단자이다. **한민**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대한태권도협회

92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식

태권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식이 지난 3월 11일 국기원에서 거행되었다.

매년 시도지부와 연맹의 추천을 받아 태권도 각 부문에 공이 큰 인사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기여해온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식은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도 3회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세창 태권도 협회장은 우수도장상, 우수선수상, 지도상 등 3개 부문 수상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하였다.

태권도부문 생활체육 유공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범에게 수여하는 우수도장상에는 서울의 정우체육관 장용갑관장의

에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5년이상 선수를 지도한 자로서 91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지도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에게 수여된 지도상에는 동아대 김우규감독의 17명이 수상했다.

또한 91년도에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한 선수에게 수여된 우수선수상에는 경희대 권태호의 17명에게 영광이 주어졌다. (부문별 수상자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제10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대표 선수단 해단식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3월 11일 국기원에서 제10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대표 선수단 해단식을 거행하였다.

대표선수단(단장 한재수 인천직할시협회 회장)은 지난 1월

▼표창수여식에 참석한 수상자들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는 대회소식에 게재)

'92 바르셀로나올림픽 파견 대표 8명 확정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제25회 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에 파견될 남녀 국가대표 8명이 확정되었다.

지난 3월 10일과 11일 국기원에서 개최된 올림픽대회 파견대표 선수선발대회는 선발 대상채급(남자:플라이, 페더, 웰터, 헤비 여자:핀, 밴텀, 라이트, 미들)별로 국가대표 1, 2위자 4명이 리그전을 치룬바 있다. (관련



기사는 대회소식에 게재)

헤비급 : 김재경(상무)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명단

(여자부)

(남자부)

핀급 : 모선영(한체대)

플라이급 : 서성호(한체대)

밴텀급 : 황은숙(상명여대)

페더급 : 김병철(상무)

라이트급 : 정은옥(상명여대)

웰터급 : 하태경(춘천군청)

미들급 : 이선희(대한체육과학대학)

“ '94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채택 적극 추진”

대한 태권도 협회는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태권도를 제외한 31개 종목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채택을 위한 협상활동에 들어갔다.

'94아시안게임의 종목 채택은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CA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1개 종목에는 각각 일본과 중국무술을 대표하는 가라데와 우슈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90년 9월 북경아시안게임 기간

중 개최된 OCA총회에서 1차 잠정 확정된 25개 종목에서는 누락되었다 이번에 추가 6종목에 포함될 것.

이에 협회는 그간 종목채택을 위해 아시아 회원국에 협조 공문을 띄우는 등 소극적인 활동에서 탈피해 체육청소년부, KOC, 세계연맹, 아시아연맹 등 모든 스포츠 외교 채널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3월 6일 협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육부, KOC 및 관련

기관들은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원영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성규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을 간사로 하는 채택추진위를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동남아 5개국과 전통적으로 아시아 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중동 5개국을 순방하며 각국의 NOC위원장과 OCA회장, '9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기로 했다.

태권도 소식

중고대학생에게 총510만원의 장학금 지급

대한태권도협회는 올해부터 경희대와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3명씩 6명에 대해서 각 4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첫 수혜를 받게된 장학생으로는 경희대의 정태원(2학년) 정찬문(3학년) 조병삼(4학년), 대한체육과학대학의 홍현경(2학년) 박장기(3학년) 강명희(4학년)가 선발되었다.

한편 91년도 국내의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중고교 선수들에 대해서는 중학생 10명에게 각 7만원씩,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5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25일 올림픽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장학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별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부

정태원(경희대) 조병삼(경희대) 홍현경(박장기) 강명희(대한체육과학대학)

▲고등부

장덕진(리라공고) 손용구(대성고) 김형원(선인고) 빙원철(여수고) 고동완(전북체고) 이재식(한영고) 윤종일(풍생고) 최재훈(경상공고) 민경환(충북체고) 정재훈(서울체고) 윤병관(광성고) 이입수(개금고) 김현식(강원사대부고) 원선진(효원고) 이순영(고양중고) 정명숙(혜성여고) 김진성(송곡고) 서미라(인천체고) 박경숙(은광여고) 진용순(광명상고)

▲중등부

안용준(공릉중) 성지훈(해동중) 박태성(한영중) 박희강(풍생중) 최원섭(영남중) 서상훈(천안북중) 임훈택(오성중) 장현미(동인천여중) 이선영(쌍문중) 최민정(대원여중)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최세창회장

기술심의회 (의장 김인석) 임원 임명장 수여식

92년도의 각종 사업의 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될 기술심의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1월 25일(토) 오전 11시에 올림픽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협회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최세창회장은 기술심의회 임원 3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태권도 기술의 발전과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심의회 의장에 김인석, 부의장에 이영근 안영택 김경지 씨가 임명되었고 1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3명 등 총 37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한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의장단의 조정을 거쳐 협회에서 임명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 의 장 : 김인석
- 부의장 : 이영근, 안영택, 김경지

소 속	직 책	성 명	위 원
기획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이택명 김강인 김대용	마명수, 안정희, 유승욱 박형철, 김진광, 김경섭 임대택, 강계명, 장종위
경기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김대연 김기용 김영철	김성배, 나창홍, 김원기 최주수, 서광석, 양인옥 황성수, 김홍식, 진장환
심판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고철성 김용길 심명구	장세배, 장창영, 오수근 최복현, 강석환, 장명수 이천수, 송우길, 최정호
심사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배성실 한상진 이백운	이상근, 홍종배, 이현노 김상익, 정광필, 배서출 실동엽, 고영철, 이한현
상벌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박덕규 오함숙 김춘근	유상철, 장이식, 배희동 장양수, 우성수, 현석주 박홍래, 김석태, 양진석
경기력강화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박창덕 진중의 김갑식	황영갑, 김세혁, 유수철 주신규, 김영희, 전정우 이재봉, 문원재, 손지희
국제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박현섭 유문규 김화룡	최명수, 최상규, 오원길 원의식, 윤옥근, 장득용 민병인, 임창배, 김동환
연구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최영렬 손천택 김석련	조광민, 이은송, 안용규 김인식, 나봉순, 김영선 강성철, 강태선, 이태환
홍보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양영모 조성봉 김근수	홍성남, 윤동섭, 권혁중 김진희, 배지영, 김택수 김동업, 김상근, 윤영복
여성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윤종완 박필순 임신자	김준태, 박영수, 박기정 김지숙, 박정옥, 김영옥 정효심, 안연순, 최승옥
생활체육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조호철 나동식 임종민	최성록, 심재권, 이동수 손영덕, 김홍배, 강승길 엄영섭, 김성철, 이만우



경기규칙 강습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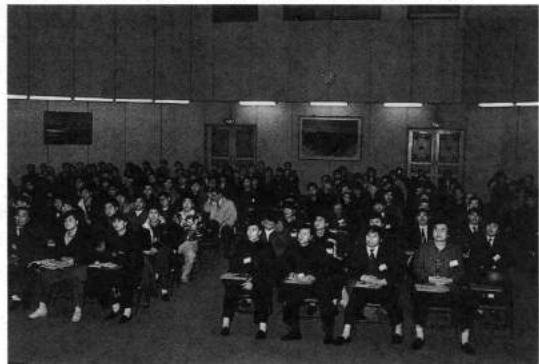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는 1,2,3급 심판자격 소지자 및 각 팀의 감독과 코치를 대상으로 경기규칙 강습회를 실시했다.

교육은 1차 (2.20-21)와 2차 (2.25-26)로 두차례에 걸쳐 올림픽 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는데 1차에는 251명, 2차에는 128명 등 총 379명이 수강했다.

예년까지는 교육일정이 1일로 주로 경기 규칙에 치우친 교육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일간 교육을 실시해 경기규칙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을 높이는 강좌를 마련해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협회에서는 본교육 수료자중 60명을 상임심판원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수료자들에 한해 각 팀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규칙강습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다.



이번 경기 규칙강습회는 각종 경기 대회에 참가하게 될 심판과 각팀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량한 경기장 풍토 조성, 질서확립과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확립시킨다는 취지로 이틀동안 교육이 실시되었다.

첫날 교육은 서울신문 고두현 기자의 "페어플레이정신"에 대한 강의, 경기규칙해설 (본회 강원식 전무이사), 심판 싸인시범 (심명구 심판분과부위원장),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틀째 교육은 경기지도자의 자세 (본회 홍종수부회장), 트레이닝 계획론 (윤성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운동처방 실장), 상해예방(김미현 태릉선수촌 물리치료사)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울신문 고두현기자의 "페어플레이정신"에 대한 강의 내용: 지상강좌에 게재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양 대승선수, 대한체육회 우수 선수상 수상

한체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양 대승선수가 2월24일(월)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한 1992년도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에서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양대승씨는 지난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양대승선수는 87년도와 89년도에 개최된 제8회 및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세계적인 챔피언.

서울체고와 한체대, 조선맥주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해온 양대승선수는 지난 세계대회우승을 끝으로 선수생활 은퇴를 밝히고 한체대 대학원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다.

92년도 상임심판원60명 임명,교육 실시

대한태권도 협회는 전국의 600여 심판 자격 소지자 중 60명의 상임심판원을 임명하고 3월4일(수)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상임심판원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90년도부터 경기장내 판정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상임심판원제를 운영해 왔다.

在美 이준구 사범 「오늘의 등불」로 선정

지난 3월 17일 미국의 이준구 태권도 사범이 부시대통령에 의해 「오늘의 등불」로 선정됐다.

부시대통령은 취임이래 거의 매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들을 한명씩 뽑아 「오늘의 등불」 칭호를 주어왔

다.

이준구 사범은 지난 30년동안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봉사정신함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7백 21번째 「오늘의 등불」로 선정됐다고 백악관 당국이 밝혔다.

상임 심판원 교육에서는 일부 개정된 경기규칙 해설,싸인실기(시범),채점방법(실기)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상임심판원 명단 : 행사기록에 게재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 졸업생 23명에게 표창장 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 27일 졸업을 맞은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 2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은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식 이후 공개행사를 비롯해 89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공개행사, 91년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했으며 각국의 IOC위원 및 외국의 귀빈 방문시 한국의 얼이 담긴 국기 태권도의 시

범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했다.

▲ 표창장 수상자 명단

이희승 유동원 이형길 신장우
신동수 이주현 김지훈 장문영
한승현 윤영택 안청명 이선영
민영준 김동욱 김동균 최진오
최정현 박영콜 한준수 정민규
한정혜 황미선 장승필

서울특별시협회

199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서울특별시 협회는 지난 91년 12월 23일 11시 서울특별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각 구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구 대의원들은 1991년도 사업 및 수지 결산

태권도 소식

과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승인하였다.

신년도 사업은 승품심사대회 22회, 승단심사대회 6회, 고단자심사대회 4회, 경기대회 5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고, 수지 예산은 경상비 2억 3백 만원, 사업비 2억 3천 6백 만원을 승인하였다.

신도림국교 어린이 시범단 유럽 순회 시범대회 실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신도림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최재무 사범)과 선수 3명(정승환, 공두환, 김인경)은 김기선 단장의 인솔하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순회 시범을 가진바 있다.

독일에서는 칼스루에에 거주하는 광금식 사범의 초청으로 성황리에 시범대회를 가졌고 네덜란드에서는 서명수 사범의 초청으로 현지 태권도인의 가정에 민박을 하면서 태권도 세계 보

급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박영달 사범의 초청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시범대회를 가지는 등 순회시범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92년도 첫 승품심사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시는 '92년도 첫 승품심사대회(367회)를 지난1월 19일 국기원에서 실시하였다.

심사에는 1품 응심자 911명, 2품 응심자 295명, 3품 응심자 66명 등 총 12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운 날씨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응심자 모두가 열심히 체육관에서 쌓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지난 2월 9일 제 368회 승품심사대회에는 1품 553명, 2품 255명, 3품 57명 등 총 865명이 참가하였고, 2월 16일 실시한 제 165회 승단 심사대회에는 667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월 23일 실시한 제 369



▲유럽순회시범을 성공적으로 치룬 신도림국교 시범단

회 승품심사대회에는 총 2,847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예년보다 10%정도 증가한 심사인원이다.

〈서울 박노규 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1억 2천여만원의 예산 및 사업 확정

부산직할시협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갖고 지난해보다 1천 4백여만원이 늘어난 1억 2천 3백여만원의 예산과 중병선수권대회 등 15개의 사업을 확정지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실시된 표창수여식에서 최용수 협회장은 부산의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사범 및 우수선수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공로상

이훈(이사), 서태만(경기분과위원장), 박재선(경기분과위원장), 김순곤(기획분과위원장), 이병천(심사분과위원), 문성현(심판원), 오만택(심판원), 김형수(심판원), 한상권(심판원), 김영규(심판원)

*우수선수상

허병옥(수성국교), 이영근(성북국교), 최윤섭(영남중), 김천규



▲부산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항도중), 윤용식(부산체고), 백정자(동명전문대)

*지도자상

김영일(동의공고)

*모범회원상

유종준(수민체육관), 광영호(고당산체육관), 이종섭(감정체육관)

제 1 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직할시협회는 2월 16일 구덕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92년도 제 1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최용수 협회장은 심사에 앞서 출전한 응심자들에게 각 체육관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태권도인으로서의 기상을 높여주길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는 1품 1,017명, 2품 441명, 3품 111명, 1단 170명, 2단 74명, 3단 45명, 4단 30명, 5단 6명 등 총 1,894명이 합격했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대전실업전문대학에 태권도 전공학부 신설

전문대로서는 처음으로 대전 실업전문대학(학장 김성경)에서 태권도 전공자 25명을 선발했다.

사회체육학과와 태권도전공자 선발은 국기인 태권도의 학문적인 탐구 뿐만 아니라 태권도 지도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태권도전공 담당교수는 대전직할시협회 태권도지 편집위원인 오노균(국제심판·6단) 씨가 맡았다.

태권도 소식

제5회 이란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충남대 종합우승

충남대 태권도팀이 제5회 이란혁명기념대회에 한국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충남대 태권도선수단(단장 김동건)은 이란 반다르 압바스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정주철(핀급), 윤희준(밴텀급), 서재남(라이트급), 황일선(웰터급), 구기정(미들급)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안성주(헤비급)가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국제적으로 태권도의 수준이 향상되어 플라이급과 페더급에서는 준준결승에서 탈락하는 등 세계의 태권도 경기기술이 평준화 되었음을 실감케 했다.

충남대팀은 1988년도에 창설되어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입상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충남대 체육과학 연구소장인 홍성표 교수는 "지방대학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의 쾌거를 이룩한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계속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한 김종성(오정중교사)씨는 "현지의 경기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하여 필승을 위해 노력한 선수들의 노고와 선수단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

지 않은 한용석 협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충부대학에 여자 태권도팀 창단

충남 금산에 자리잡고 있는 충부대학(학장 고종성)은 전국가대표코치 김영인씨(충부대학 전임강사)를 감독으로 임명하고 체육 특기자 4명을 선발, 여자 태권도팀을 창단했다.

태권도팀 감독을 맡게된 김영인 교수는 85년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86년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87년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88년 서울올림픽대회 태권도 선수단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한바 있으며 90년도부터 91년까지 2년간 중화대북 여자대표팀 코치로 활동하기도 했다.

창단 선수는 김옥선(원예학과), 최동현(농농학과), 이종원(임산학과), 백현정(임산학과) 등 4명이다.



고종성 학장



김영인 감독

'9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충청남도협회는 1월 27일 대천 세원 부폐 회의실에서 92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종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남협회의 20개 시·군 태권도 가족들이 희망과 의욕을 갖고 충남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날을 설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수선수를 조기발굴하여 육성하고 과학적인 기술개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충남협회의 올해 세입과 세출 예산은 9천 5백만원으로 승인되었고 세입금액 중 2천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이 찬조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총회를 마치고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의 감사패 및 표창패, 충남협회 이종승 회장의 표창패가 수여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장상

한문복 부회장(표창패)
이강노 부회장(감사패)
오세준 부회장(감사패)
양준목 전무이사(표창패)

*충남협회장상

김종길 서산군대의원(표창패)



▲충남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신인기 예산군대의원(표창패)

충남체육고등학교 개교식

충남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충남체육고등학교가 논산군에 설립되었다.

충남체고는 이종국 충남체육회장을 비롯하여 백승탁 교육감

등 충남체육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11시 충남체고 실내체육관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충남체육의 요람이될 체육고등학교의 육성 종목은 태권도부를 비롯하여 육상, 수영, 유도, 복싱, 양궁, 레슬링, 근대5종에 남자183명, 여자 37명 등 총 220



▲충남체육의 요람이될 충남체고의 개교식

태권도 소식

명의 특기생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숙사 38실로 선수전원을 수용
하게 된다.

특히 태권도부는 특기생 17명
이 입학, 동계훈련에 돌입하였고
(구)논산공업고등학교 태권도부
를 흡수하여 정해준 지도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지난 제72회 전국체전 최종평
가전에서 1명도 선발되지 못한
것을 교훈삼아 동계 강화훈련을
하고 있는 충남체고는 지도교사
및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충
남대표선발 및 전국규모대회에
서의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충남태권도협회 양준목 전부
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선수단
여러분이 충남태권도 고등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운동선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수
단에게 격려금을 전달 하였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충청북도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충북협회는 지난 2월 14일 충북
협회 사무실에서 도대의원 2명
(지민규, 지용범), 시·군지부 2
명(이창일, 김주열), 도장군 2명
(김상무, 성경환), 위임 2명 등
총 8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종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
72회 전국체전에서 충북선수단
이 5위에 입상하게 된 것은 충북
태권도인들이 일치단결한 결과
라며 치하하고 올해부터 부활된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을 거두어 충북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
길 당부했다.

충북협회는 올해에 12건의 대
회 및 행사와 6회에 걸친 강화훈
련을 실시한다는 사업계획을 확
정했고 3천 6백 3십만원의 예산
을 승인했다.

지민규·선상준 충북체육상 수상

충북체육회가 매년 충북 체육
발전에 공이 큰 지도자 및 선수
에게 수여하는 체육상 시상식이
2월 28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계 인사로는 지민규 충
북교육청 코치와 충북대의 선상
준 선수가 각각 지도자상과 우
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1,2월 승품단 심사대회서 701명의 합격자 배출

전남협회에서는 1월과 2월 중
에 3회의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
시하였다.

1월 25일 목포대 체육관에서

는 목포지구심사, 26일에는 전남 체육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전남지구 심사가 개최되어 총 541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 1품 247명, 2품 75명, 3품 10명, 1단 112명, 2단 57명, 3단 25명, 4단 11명, 5단 4명이다.

2월 15일에는 보성여중 실내체육관에서 보성지구심사가 개최되어 총 160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1품 23명, 2품 13명, 1단 110명, 2단 6명, 3단 4명, 4단 4명이다.

상임심판원 교육 실시

전남협회는 3월 8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전남 상임심판원 6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연초에 일부 개정된 경기규칙에 대한 강의 및 경기장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자세 등이 강조되었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국민학교 연맹

경기이사 총회 개최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은 지난 2월 1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경기 이사 총회를 개최하였다.

91년도 결산승인의 전에서는 수입 34,189,994원 지출 30,367,207원 이월 3,822,787원으로 결산을 통과시켰고 올해의 예산으

태권도 부부탄생

영광체육관 최준곤 사범과 제자 박미향씨 (2단) 화촉.

전남협회 최경량 이사의 동생으로 영광체육관 사범(현 영광서해 컴퓨터 학원장)인 최준곤 사범이 영광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2단을 따낸 제자 박미향씨와 결혼했다.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영광 황정예식장에서 거행된 이날 결혼식에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참석해 태권도 부부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로 3천 5백만원을 승인했다.

한편 국민학교연맹은 연맹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정태 회장, 안해옥 부회장, 주상일 부회장, 황성길 총무이사, 김영삼 경기이사, 최재무 심판이사, 남상진 교육이사로 구성된 실행 이사회를 보강하였다.

모범 태권도 어린이 표창

국민학교연맹은 91년도 전국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을 맞은 모범 태권도 어린이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강원도 장성국민학교 이상옥 등 68개교 105명에게 수여된 국교연맹 표창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옥	안수방	이승진	명재진
엄광홍	손정국	한대열	박재연
김종성	손승범	노충균	김 원
전재현	이희승	유동원	이형길
신장우	신동수	이주현	김지훈
장문영	한승현	윤영택	안정명
이선영	민영준	김동욱	길동균
최진오	최정현	박닝쿨	한준수
정민규	한정혜	황미선	장승필
김운수	김재용	김주호	김병호
정은수	서정훈	문정모	김현주
김희철	이한국	김종관	이도용
최영호	조은현	이현준	선형욱
원종인	박윤심	박원국	김보희
최윤희	임인옥	김재우	김강훈
이훈재	이종관	김행철	정성안
정종희	최경식	홍종영	최주원

태권도 소식

김동민	강구욱	이재혁	박용구
조영관	김현수	송재원	김종복
최성후	황길재	허진수	박희철
정명진	김정훈	박진성	김정수
이재호	김성중	신현진	이동원
이성재	권병렬	정광채	홍현옥
배소영	정응조	곽정원	장현철
이제우	김용환	장성한	정진우
정광현	정승환	임우성	김영관
이관학			

엄명옥·양성택·이종희씨 등 8명이 국기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수료자 명단은 행사기록에 게재)

세계태권도연맹

93년도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국 뉴욕에서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제11회 남자 및 제4회 세계여자 태권도선수권대회를 미국태권도협회의 주관으로 93년 8월 19일부터 21일 까지 미국 뉴욕 메디슨 스페어 가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기 세계대회 개최지 선정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0차 세계 연맹 총회시 일본 및 대만이 유치권을 신청, 경합을 이루었으나 신청국들의 제반 미비사항으로 추후 세계연맹

국기원

158명의 지도자 배출 제70기 사범교육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2월 21일부터 29일 까지 제 70기 사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 168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158명이 사범자격증을 획득했다.

수료식에서는 양현모·박찬길·정창수·이정미·손지희·



▲수료식에서 시상하는 김운용국기원장

에서 결정기로 위임된 바 있다.

해외 승품단 심사비 인상

세계태권도연맹은 국기원 기
술심의위원회 결의에 따라 92년
7월 1일부터 해외 승품단 심사
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단별로 조정된 심사비는 다
음과 같다.

단(품)	심사비(US\$)
1	70
2	90
3	120
4	150
5	300
6	350
7	450
8	550
9	700

아시아태권도연맹

최원영씨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에 선출

주간 시사저널 발행인 최원영
씨(경원학원 이사장, 국제언론
문화사 대표이사)가 아시아태권
도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원영씨는 지난 1월 30일 말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
린 제10차 아시아태권도연맹 정
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
었다.(관련기사: 신임 아시아태
권도연맹 회장 인터뷰)

제1회 협회장기 품새 및 시범경연대회

12월 펜싱 경기장서 개최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한국을
대변해온 태권도가 무도본연
의 자세를 되찾기위해 경기인
을 포함한 2백 50만 국내수련
자 전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대한태권도 협회는 초, 중,
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로 나눠
채급우승자를 가리는 협회장
기 대회를 현재와 같은 겨루기
방식에서 달피, 올해부터 품새
와 특기로 부문을 나눠 새방식
으로 전환기로 했다.

협회는 또 등록 선수만이 대
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제한
규정도 이대회에 한해서 철폐,
일선도장과 각급학교, 혹은 독
자적으로 품새를 익히거나 가
르쳐온 수련자와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같은 대회운영 방식전
환은 61년 협회가 창설된이래
30년만에 처음. 따라서 태권도
가 가진 무도적 측면을 확대,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이
대회는 품새경연과 특기부문
으로 치러지는데 품새경연부
문은 저품, 저단자의 경우 품
새의 형을 시연함으로써 기본
적인 태권도동작의 완벽한 습
득을 겨루고 고단자는 스스로

새로운 품새를 창안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기부문은 고난도의 발차
기와 격파 등을 통해 스포츠를
떠난 무예로서의 본모습을 확
인하는 종목이어서 치고붙는
단순한 경기내용에 식상해온
일반관중들에게 무도의 진면
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또 경기방식의 관중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품새경
연의 경우 심판진이 현장에서
직접점수를 게시토록하고 격
파의 경우 깨진 벽돌이나 나무
판자의 숫자로 관중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대한태권도협회 姜元植전무
는 「이제까지 태권도가 국제무
대에 올라가기위해 경기화에
주력해온 결과 올림픽에 두번
연속 시범경기로 채택된 것을
포함해 10여개 국제대회의 공
인종목이 됐다」고 밝히고 「그
러나 이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도가 가지는 생활체육적 측
면이 침체됐던 것이 사실인만큼
이제부터라도 협회가 나서
무도화를 통한 전국민의 생활
체육종목으로 확대시키기 위
한 첫시도」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1월 12일 자〉

봄이 오는 소리

글·유재용

〈조용히 귀 기울이면 사뿐사뿐 다가오는 봄의 발자국소리가 들린다〉

전에는 봄을 기다리는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흔히 끼어 들어, 대할 때마다 상투적이고 낡아빠졌다는 느낌을 가슴에 안겨 주곤 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문에 그런 문장이 끼어 들면 작문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사용한 이런 문장을 되풀이해 사용하면 공평이 냄새 나는 글이 돼버려요」 하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와서 봄을 기다리는 글에 〈봄의 발자국소리〉니 〈봄의 고동소리〉니 하는 표현은 잘 끼어 들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낡았기 때문 만이 아니라 어느때부터인가 우리는 〈봄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가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쪽이 옳을지도 모른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주된 원인은 도시생활이랄 수가 있다. 게다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시대다.

도시사람들도 봄을 기다리고 도시에도 봄이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봄을 느끼는 방법은 첫째가 기온에 의지하는 것이다.

〈바람은 아직 차지만 바람속에 매운 기운이 꺾인 걸 보니 봄이 가까이 왔구나〉

물론 시골사람들도 바람결에서 봄기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봄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하나가 아닌 것이다. 맛도 있고 냄새도 있고

색채도 있고 소리도 있다.

봄소식을 전하는 대표적인 맛은 냉이와 달래다. 요즘 도시사람들은 봄의 문턱이 아니라 겨울의 한 가운데서 냉이와 달래를 맛볼수 있게 되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속성재배한 냉이와 달래다. 그러나 그것은 양치바른 논두렁과 밭두렁, 이제 막 알을 풀린 땅을 비집고 어린 뿌리와 잎새로 솟아나온 순수한 자연속의 냉이와 달래가 아니다. 맛도 향기도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많은 도시사람들은 나물인가보다 하고 먹기는 하되 냉이와 달래가 봄의 전령으로서의 의미를 지녔음을 모르기 일쑤다.

그런 도시사람들에게 봄의 전령으로서의 냄새를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아직도 차차만 바늘 끝같은 매운기가 가신 바람결 속에 알듯 모를듯 스며들어 봄의 냄새, 그것은 겨우내 꽁꽁 얼어 붙어 땅에서 얼음이 풀려 나가면서 공기속으로 흩어져 들어간 흙냄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두껍게 포장되어 맨땅이라곤 구경하기도 힘든 도시에서 아직도 찬바람속에 은은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얼음 풀린 흙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봄소식을 전하는 색깔도 그렇다. 개나리의 노란색 진달래의 분홍색 목련의 흰색은 도시가정에서도 만날수가 있다.

그러나 개나리 진달래 목련의 꽃들은 봄의 전령이라기 보다는 봄 그 자체에 가깝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려 노란색 분홍색 유백색으로 대지를 물들였을 때 그 현란함은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봄이 이미 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색깔은

양치바른 쪽 얼음 풀려 검붉게 변한 흙색깔이고 그흙을 군데 군데 물들인 이름 모를 잡초 새싹들의 연두색깔이고, 마른 풀잎이나 주위로 아지랑이가 만들어 놓는 아른대는 물색깔이다.

도시 사람들은 봄의 전령이 지닌 그런 색깔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봄을 알리는 소리다. 도시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봄의 소리는 빗소리일 것이다. 겨우 내 눈 만 보다가 어느날 문득 들려오는 빗소리. 그러나 도시사람들이 첫번째로 내리는 비에서 봄을 느낀다면 그것은 빗소리가 아니라 비 그자체일 것이다. 날이 폭해져서 눈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봄이 가까와졌나보다, 하는 생각일 뿐일 것이다.

어느 시인은 봄비가 소근 거리듯 내린다고 읊었다. 그것은 봄비가 소나기나 여름장마처럼 억세거나 끈질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봄소식을 전하는 대화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수도 있다. 그리고 좀 세차게 쏟아지는 봄비일지라도 대자연 속에서 마른 나무가지들을 적시고 얼벗은 논과 밭을 적시며 내리는 빗소리는 충분히 속삭임으로 들릴 수가 있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은 그렇지가 못하다. 자동차 소리를 비롯한 온갖 잡음이 빗소리를 온전하게 전해 주지 못한다. 도시의 빗소리는 여간해서 속삭임으로 들리지 않는다.

병아리소리만해도 그렇다. 이른봄에 들려오는 병아리소리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소리의 하나다. 하지만 도시의 거리에서 장사꾼들이 상자에 넣고 다니며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파는 병아리 소리는 시골에서 어미닭을 따라다니며 뼈약거리는 구병아리 소리는 아니다. 어미닭을 따라다니는 시골의 병아리는 새롭게 탄생한 생명인데 반해 도시에서 장사꾼이 지고 다니는 병아리는 생명으로 취급되지 못한 장난감이기 때문이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얼음이 풀려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소리, 그리고 한결 밝아진 새소리. 그 때 도시사람들의 귀는 그런 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잊어버린 상태다. 그리고 겨울동안의 움추린 새소리와 봄을 느끼며 발랄해진 새소리의 차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그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물론 도시사람들은 봄이 오면 들로 산으로 떼지어 몰려 나가 마음껏 봄을 즐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와서 정착하고 만개한 봄을 즐길 뿐이지 저만치서 가만가만 다가오고 있는 봄을 즐길줄은 모른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 얼음이 풀리기 시작할때, 아저 덜 녹은 얼음장 밑에서 알듯 모를듯 전해져 오는 봄의 기운, 봄의 맛, 봄의 냄새, 봄의 색깔, 봄의 소리를 심세한 감각으로 알아내고 음미하면서 가슴에 안게 되는 생명의 환희 그 신비감에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노릇인가.

자연을 추방해버리고 자연을 등진 도시사람들은 자연의 외양만 볼 수 있을 뿐 자연의 실상과 그 미세한 기미를 느낄 수 없는 장애자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다시 봄을 맞는다. 들뜨지 말고 봄의 속삭임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자. 봄의 속삭임에서 우주의 순환과 생명의 환희에 관한 진리를 터득하도록 노력해보자. **박민준**



유재용

- 1936년 강원 김화출생.
- 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
- 대한민국문학상.
- 東仁문학상 수상.
- 「포리달린 사람」
- 「누님의 초상」
- 「聖城」등 출간.

머리 올리던 날

글·이기진
그림·이항원

드디어 오늘은 첫 출연날.
신인 텔런트 민우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그 짧은 대사 한단락을 외우고 또 외우길 수십차례. 지난 일주일 동안 민우는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든 시간까지 줄곧 첫 출연의 순간만을 생각하며 지냈다.

혼자 거울 앞에서 한껏 품을 잡고 연기를 하기를 수십차례. 그동안 선배 연기자들의 녹화 VTR을 돌려보며 연기를 흉내 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민우는 늘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했고 가끔 씩은 그 잘외운 대사를 순간적으로 잊어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은 운명의 날. 소풍을 하루 앞둔 국민학생마냥 설레움에 잠을 설친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는 한껏 긴장된 목소리로 대사를 읊었다.

"대감, 함경관찰사로 부터 긴급 통지입니다. 동북변방에 오랑개가 창궐하여 조선양민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바 이의 응징을 요청합니다. 오랑개는..."



하도 많이 연습을 한 때문인지, 민우는 힘들이지 않고 단숨에 대사를 읊어나갔다. 이 정도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듯 싶었다. 이번에는 실제상황처럼 바다에 끌어앉는 자세로 연기를 해봤다. 역시 한치의 실수없이 연기를 해냈다.

이 기진(李基珍)

경남 김해産
문인협회 작품공모를 통해 문단에 나왔다.
작품으로 소설 '아버지의 강'
'그해 겨울' 등이 있다.
현재 SBS TV제작2부 PD로 근무중이다.



이른 아침인데도 방송국 스튜디오는 북적대고 있었다. 바빠 움직이며 세트를 손질하는 세트맨들과 카메라 앵글을 맞추느라 분주한 카메라맨들, 조명을 조절 하면서 악을 박박 쓰는 조명감독. 그밖은 소품을 이리저리 옮기느라 바쁜 일꾼들, 수백번

이 넘는 의상을 챙기느라 분주한 의상실 직원들이 한데 뒤섞여 스튜디오안은 시창터를 방불케했다.

잠시 스튜디오안을 살펴본 민우는 분장실로 발길을 옮겼다. 분장실 안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다. 웃을 같아

입는 사람,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 대본을 들고 대사를 외고있는 연기자들이 뒤섞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분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때 저만치서 민우를 발견한 연기자가 소리를 쳤다.

“이민우, 자식 이제 오냐. 군기 빠져갔고... 야 담배나 한 대 주라!”

요즘은 꽤나 잘나가는 텔레트박상진이었다. 민우는 급히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야, 너 오늘 머리 올린다며?”

이번에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선배 김홍권이 소리를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분장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민우는 고개를 수그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겨우 한 마디 하는걸요.”

“야, 한 마디가 어디야. 우리 때는 그 한 마디 하는데 1년 걸렸다.”

1년? 민우는 순간 자신이 방송국에 첫 발을 디디던 때를 떠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대며 밥만 축내고 있던 지난해 봄, 민우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신인텔레트 모집공고를 보게 됐다. 여기저기 취직시험장을 기웃거리기를 어인 7개월, 3류 대학을 졸업한데다 집안에 별다른 백도 없어 민우는 입사시험 때마다 고배를 마시곤 했다.

“에이 좋다. 따따라면 어떠냐?”

아예 연극이나 영화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민우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자신이 생겼다. 다행히 대학시절 동료여학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외모가 준수한 것이 은근히 자신감을 불려일으켰다.

1차, 2차시험을 거쳐 드디어 3차시험을 통과하던 날, 민우는 마치 자신이 최고의 토크엔트리가 된 기분이었다. 토크기자인 황신혜나 이혜숙 체시라 등과 함께 공연을 하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고, 가는 곳마다 여성팬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꿈도 꾸었다. 하지만 연기자의 길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힘겨운 연습기간이 끝난후에도 민우에게는 6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역도 주어지지 않았다. 얼굴이 예쁜 여자 후배들 가운데서 몇몇은 벌써 연속극에 고정배역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던가? 열심히 녹화장을 따라다닌 정성 때문인지 드디어 민우에게 찬스가 왔다. 사극을 연출하는 오 PD가 첫 배역을 준 것이었다.

“야 이민우, 뛰해 거기서! 빨리 오! 같이입고 분장도 해야지!”

“네!”

“야 너 연습 많이 했지? 실수하면 풀이야!”

잠시 분장실에 들른 조연출자가 민우에게 한 마디 내뱉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조연출자가 분장실에서 나가자 동기생 명훈이 앞으로 다가왔다. 아역배우 출신의 명훈은 동기생 중 가장 먼저 데뷔를 한 친구였다.

“어이, 합경도 관찰사!”

“야, 합경도라니?”

“너 배역말이야. 한번 실력 발휘해봐!”



“자식, 난 합경도 관찰사가 아냐. 난 전령이야!”

“무슨 소리아, 여기 대본에 어떻게 나와있는데?”

민우는 깜짝 놀라며 열린 대본을 펼쳐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은 분명히 전령이었다.

“밑에 잘봐. 전령역은 10기 이민우선배끼고, 넌 밑에 관찰사야!”

아, 이럴수가... 자세히 대본을 살펴 보니 가끔씩 등장하는 전령역은 이름이 같은 선배의 것이 아닌가! 민우는 순간 앞이 캄캄해져 왔다. 이미 시계는 10



시를 넘고 있었다. 녹화 슈팅까지의 채 한 시간도 안남은 상황이었다.

“아 몇마디 안되는데 외우면 되지 뭐 그러냐?”

그러나 마음이 초조한데 대사가 외워질리 만무했다. 더우기 사극이라 말도 어려웠고, 대사도 단숨에 해내려가야 했다.

“아, 뭐 걱정하나, 이리와봐.

그 대사 외우기 힘들면 밑에 장판에다 써놓고 하면되잖아. 그건 화면에는 안나와”

옆에 있던 대선배인 이국성이 안스러웠는지 한 마디 거들고

나섰다. 민우는 급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 청소를 하는 채하면서 장판에 대사를 얼른 써놓았다. 혹시 PD가 눈치챌 것은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운명의 녹화시간이 다가왔다. 분장실에서 정성들여 옷매무새를 만진 후 민우는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다.

“자, 뛰어들어와 임금 앞에 엎드리면서 말한다.”

호랑이로 소문난 오프의 지시대로 민우는 임금 앞으로 썩썩하게 뛰어 들어가 엎드렸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바닥에 써 있어야 할 대사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럴 수가?

“컷! 뭐하는 거야 임마! 이 X X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만”

화가 난 오프의 성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지나갔다.

녹화전 점검에서 바닥의 장판이 조명빛을 받아 반사가 일어나 이를 교체했던 사실을 민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민우는 눈앞이 아득해져움을 느끼며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142**

태권가족



30/향원





차등제 경기룰로 경기 문화를 꽃피우자

이경명 · WTF 사무차장

관 중없는 경기는 싱겁고 재미가 없다.

경기의 활성화는 선수 심판 및 관중의 공감대 삼위일체적 형성에서 창출되는데 그 중 경기룰의 비중이 막중하다.

경기룰은 관정의 시비를 확정짓는 바로미터인데, 선수 심판 및 관중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때 그 규칙은 완벽한 것이라 하겠다.

어느 경기 종목이간에 경기룰은 각 종목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배려해 규정되어야 하며 체육적 가치성을 고양하고, 선수와 관중에게 각기 적중한 관경과 보고 즐기는 흥취감을 안겨줘야 한다.

현행 태권도 경기 규칙은 단순하여 무미건조하다.

태권도 경기화는 60년도초에 출발하였는데 직접타격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태권도장비는 몸통보호구, 팔다리 보호대, 살보대 및 머리보호구에서 여자 가슴보호대에 이르는 장비의 확충의무로 경기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장비의 개발은 태권도가 지닌 가공할 발기술의 위력에 대처, 이루어 졌는데 확실히 부상률을 격감시켜 주었다. 그러나 1점 득점제로 인한 기술구사의 확실성이 태권도 경기문화를 침체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권도의 손, 발기술은 다양 특히 발기술은 어느 유사무도 보다 앞서 개발, 고도화되어 있고 엄청난 공포감을 자아내는 위력이 특성이다.

그래서 채점의 기준도 위력과 함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기규칙은 1점제로 인해 다기다양한 기술구사의 필요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태권도 경기에서 공격부위 즉 몸통과 얼굴은 속도, 난이도와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때 공격부위와 난이도를 구분해 강조되는 차등점수제의 채택은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체육적, 무도적 가치의 실현은 고난도 기술구사, 정확성과 위력은 태권도 경기를 통해서 바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를 경기의 이상으로 추구 (WTF규약 제1조3항)함이 아닐까.

근자에 관정의 시비를 제거하고 관중에게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즉시 표출할 수 있는 채점기를 개발, 지난해 부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사용해 오고 있으며 관정의 시비가 격감되고 관중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술의 난이도에 의한 차등제 도입은 이런 까닭에 시급한 과제이다.

근래에 태권도계 정향각지에서 일고 있는 차등제 연구 열기는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의 원리와 구조 즉 무도성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차등점수제는 경기 때마다 빛나는 시시비비 등 시끄러운 경기 풍토를 개선해 줄 것이고 선수와 관중에게 신선도를 안겨줄 것이다.

태권도 관중이 경기를 지켜보며 내린 자기 관정이 적어도 심판의 결과와 일치할때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

고난도 기술의 구분에 의한 차등득점 평가기준이 심판과 관중에게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량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경기화의 목적과 정신을 보다 태권도의 구조적 원리에서 추구, 구현되어야 한다.

한편 승부욕에 불타는 선수의 날렵한 동작이 절묘한 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관중이 박진감을 감추지 못하며 주먹을 불끈 쥐며 흥미 진진해 할 때 참신한 경기 문화는 꽃피우게 될 것이다. **태권**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

- 현대 태권도의 초석을 쌓은 원로 태권도인
순복음교회 장로 김선구 9단
- 연세대 태권도부 동문회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건축부장
전강종



김선구씨



전강종씨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현대 태권도의 초석을 쌓은 원로 태권도인

순복음 교회 장로 김선구 9단



• 김선구

1926년 경기도 화성 출생(66세)

심상고등소학교 및 상업 고교를

거쳐 건국대 법대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전 사무국장,

기획이사, 경기이사 등을 역임.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달국장.

태권도협회 창립초기 임원으로 활동

현대 태권도가 태동을 시작한 후 1960년대 태권도계가 협회를 결성하고 세계사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 태권도 협회 집행부 임원으로 재직하며 태권도 발전의 초석을 쌓은 원로 태권도인 김선구 9단.

“1963년 2월에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입 승인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규약 및 규정을 제정하여 그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등 태권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태권도협회가 구성되고 경기규칙, 심판규정을 제정하던 창립초기에 그는 청춘을 바쳐 태권도를 위해 일했던 태권도인중의 한사람이었다.

지금은 원로 태권도인중의 한 사람으로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집을 짓듯이 벽돌을 쌓았던 것들이 “보람”으로 남아 있다.

그가 72년도에 태권도 협회 사무국을 떠나기까지 10년동안 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단증 및 각종 상장에 까지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일이 단증과 상장을 손으로 쓰던 시절이라 서예실력이 뛰어난 그의 몫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오래된 도장에는 그의 손으로 쓰여진 상장들이 걸려 있어 태권도계에 몸담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기와와 벽돌을 깨는 것도 정신적인 연마를 통해서 가능

그가 태권도를 처음 접한 것은 해방을 맞은 다음해인 1946년도.

“일제하에 학교를 다니면서 유도를 배웠습니다. 유도 뿐만이 아니라 기계체조, 배구, 테니스 등 운동에 취미를 갖고 많은 운동을 섭렵했습니다.

유도 2단까지 댔는데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의 태권도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 YMCA 권법도장에서 윤병인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이 삐뚤어질 정도로 많은 송판을 깨면서 연습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며 그의 손을 봐 보인다.

“당시 수심차례의 연무대회(시범대회)에 참가해 조선기와와 벽돌을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파시범은 정신통일을 이루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신적인 연마를 태권도 수련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눈에서 빛이 날 정도로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수련하던 당시를 회상하는 김선구 장로에게는 요즈음 송판이나 양기와를 깨는 정도의 격파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근기와 인내로 수련한 태권도 기술과 정신수련의 결집으로 격



▲눈에서 빛이날 정도로 열심히 수련하던 당시를 회고하는 김선구장로

파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기대하는 격파의 모습이다.

아직도 젊은이와의 팔씨름에서 지지않을 정도로 건강

김선구 장로는 이렇게 성장



▲그는 요즘 시끄럽고 혼탁한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 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 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 해온 운동덕분에 이제 60을 넘긴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어지간해서는 젊은이와의 팔씨름에서 지지않을 정도로 건강을 자랑하고 있다.

김선구 장로는 태권도 수련 후 창무관 중앙도장에서 사범으로 후배를 지도했으며 1957년 6월에는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성동도장 문을 열어 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은 그의 제자가 일선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는 태권도인들을 키운다는 자부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극기와 인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값진 재산

태권도를 평생해온 그에게 태권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도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엄마손을 잡고 도장문을 들어선 어린이들은 어디 혼자 내놓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이거나 철부지 개구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가면서 절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튼튼해진 몸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극기와 인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값진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련생들을 보면서 나도 태권도 때문에 저렇게 성장해왔구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태권도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인들 “무도인으로서의 긍지” 갖고 살아가주길 ...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를 만나게 된다면 사 오십대로 봐 줄만큼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것도 그의 건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통한 마음의 평화가 그를 젊게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는 197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장로로 봉직되었고 1974년도부터 교회에서 총무국장, 경리국장, 선교국장, 비서실장, 총회본부 사무국장, 신학교 사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해왔고 현재 새로 생긴 조달국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 준비가 되어있다”며 담담하게 미소짓는 얼굴에는 세상의 많은 시름도 넉넉히 감싸고 용해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듯하다.

요즘은 시끄럽고 혼탁한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 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김선구 장로.

끝으로 그는 태권도인들에게 “무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박민지**



태권도 그리고 사람들

연세대 태권도부 동문회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건축부장 전강종



• 전강종

1949년생

1968년 연세대 건축학과를 입학하여 75년 2월에 졸업

197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월성, 영광, 울진원자력 건축과장을 거쳐

1989년 부터 건축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91년 정기총회에서 연세대 태권도부 동문회장으로 선출

▲연세대 재학시절.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

기라성같은 선후배 동문들 각계각층서 큰 활약

전강중 한국진력 송변전 건설
처 건설부장은 지난91년 12월 7
일 세라톤 워커힐 로즈가든에서
열린 9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
회 모임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우리 태권도부는 엄격한 보
다는 화기에애한 가운데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운동
하는 씨름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부로 꼽힐 만큼 재학
생들은 대부분이 장학금을 댔습
니다.”

태권도부가 운동부이기 때
문에 엄격한 규율을 떠올리기 쉽
지만 “선 후배가 맞먹다 선배한테
맞기도 하는 식”의 친밀함이
오늘에 까지 이어져 서로 애
경사를 챙겨주며 호형호제 할만
큼 가까운 동문들이 되었다.

연대 태권도부 동문회는 현재
2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뿌리 깊
은 단체로 성장, 지난 78년도부
터 시작한 연세대총장기대회 개
최의 후원자로서 지금까지 15회
대회를 이끌어 왔다.

현재 사회 각분야에는 기라성
같은 선후배 태권도인들이 각계
각층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인 이금홍씨 (경인 미술관 대표
이사), 이관우 한일은행 이사 및
이인범 한국외환은행 학동로 지



▲엄격함보다는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태권도부의 특징이라는 전강중씨.

점장, 정필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민진식 세브란스병원 일
반외과의사, 허동수 럭키금성
호남정유 사장, 김경배 국무총
리실 제2 행정조정관실 서기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이다.

확창시절 흰 도복을 맘에 적시며 다진 체력과 정신 력이 재산

태권도부 동문들은 격월간으
로 한번씩 기별 간사 모임을 갖
고 있으며 연말 송년회때 전체
모임을 갖고 있다.

전강중회장은 학창시절 흰 도



◀군 태권도 교관단 시절



▼축제때 운동장에서 연무 시범을 보이던 모습

복을 땀에 적시며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다진 체력과 정신력이 태권도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어 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있다고 강조.

고교 1학년때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정강중씨는 1968년도에 연세대 건축과에 입학해 태권도 부에 들었고 3학년때 태권도부 장을 역임했다.

또한 군대에 입대해서는 육 군보병학교 태권도 교관단의 일 원으로 근무했다.

후배에게 장학금 주며 태 권도 대회출전

그는 대학시절 태권도부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잊혀지지 않는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

“73년도였는데 당시 대통령기 대회 및 대학연맹 대회에 출전 하고자 선수를 선발하였으나 대 부분의 태권도부 회원들이 대학 에 들어와서 태권도를 취미삼아 시작한 학생들이라 시험에 출 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교시절 선수를 신인 학생을 찾아 태권도부에 입회할 것을 권유하였더니 가정 형편상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며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부에서는 그 학생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 관이시던 김운용선배님(현IOC 위원)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 렸더니 흔쾌히 장학금지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후 태권도 부원들은 태권도시합에 출전해 큰 수확을 거두고 대학 노천극 장에서 밤세워 술을 마시며 백 양로길을 오르내리며 즐거워 했 습니다.”

비인기종목의 설움씻고 국 민들의 사랑을 뽐낼만한 태권도되길 소망

그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양 과 절적인 면에서 성장하여 왔 으나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다 대해서 우리 모 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태권도가 비인기 종목 의 설움을 씻고 국민들의 사랑

을 듬뿍받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하나같은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속 씨름 경기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바와 같이 태권도 대회시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적절한 홍보 활동으로 태권도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민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격투기의 태권도가 아닌 국민 생활 체육과 연관시켜 별도의 기구를 협회산하에 신설해서 중 장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유단자 이상의 태권도인들에 대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태권도의 결속을 다지며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발전의 기틀을 삼는 것도 무시 못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운영에도 전문 태권도인만이 아니라 정, 경, 학계의 인사를 두루 흡수하는 등 국내의 태권도 관계자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여도 사범의 어학실력 부족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을 수용해 지도해 줄만한 태권도장이 없는 것도 태권도 중



▲원자력 건설현장에서(오른쪽에서 두번째)

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역이기주의 팽배 안타까워 "원자력은 안전" 강조

그는 1975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월성원자력, 영광원자력, 울진원자력 건설현장에서 13년간 근무하다 91년6월 서울로 올라와 송변전건설처 건축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자력 현장에서 13년동안 근무하면서 부인과 1남1녀의 자식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그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체 에너지가 없는 한 원자력 건설은 필수적이며 기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율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건설을 결사반대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의 (Not in my Back Yard: 님비현상)가 팽배해짐에 따라 적기에 땅을 구입하지 못해 전기공급에 차질이 올까 두렵다"며 태권도인들 만이라도 이자리를 빌어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태권**



가정에서의 컴퓨터의 활용

지난 겨울호까지는 도장에서 컴퓨터의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번호에서는 가정에서의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많은 태권도인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에서의 컴퓨터의 활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뎀(modem)을 이용한 각종 정보의 이용과 각개인과의 PC-통신
2. 국민학생을 위한 학습 디스켓의 사용
3. 일반적인 가계부의 정리 (개인의 주소록 관리 및 주요행사관리)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뎀을 이용한 각종 정보의 이용과 각개인과의 편지의 교환이 가정에서 활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MODEM을 이용한 정보의 이용

modem을 이용한 각종 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modem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겠다.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간에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전화선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무선통신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화선을 통한 연결이다.

그런데 전화선은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



신성환(청호 태권도장 관장)

1959년 서울에서 출생해 영동고를 졸업했다
1982년 10월부터 도장을 운영해 88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도장운영에 이를 활용해왔다.
앞선 도장에도 수련생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성환씨는 그동안 76호(91. 봄)부터 컴퓨터시리즈를 써왔다.

MODEM이란
컴퓨터 신호를 소리신호로
바꾸고 또 반대로 소리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꾸어 가정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PC(컴퓨터)와
PC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컴퓨터간의 정보전달에
는 적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나오
는 정보의 신호를 소리로 바꾸어서 전화선에
실어 보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modem이다.

다시말해서 modem이란 컴퓨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꾸고 또 반대로 소리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꾸어 가정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멀
리 떨어져있는 PC-(컴퓨터)와 PC간에 통신
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겠다. 이러한
modem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알
아 보도록 하겠다.

1) 속도에 의한 분류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300bps, 1200bps, 2400bps, 9600bps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통상적으로 가격과 현재의 우리
나라 전화 선로의 상태로 보아서 2400bps
modem이 가장 사용하기에 좋을 것이다. mod-
em의 가격은 10만원대에서 20만원 선이다.

(주)bps(bits per second)란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수를 말한다.

한글 한글자는 16비트이다.

2) 장착되는 위치에 따른 분류

modem이 장착되는 위치에 따라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장형은 컴퓨터 내
부에 있는 확장 슬롯이란 곳에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손바닥 크기만한 pcb(인쇄회로기판)
이다.

외장 모뎀은 내부 슬롯에 장착하는 것이 아
니라 컴퓨터 외부에 존재하고 단일의 전원을
사용하며 컴퓨터와의 연결은 RS-232C 케이블
로 연결이 된다.

내장 모뎀과 외장모뎀간의 장단점은 다 있다.
내장 모뎀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작
동상태를 확인 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고
외장형의 경우에는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으며 모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컴퓨터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전혀 이상
을 주지 않는다는 반면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내장형과 외장형 모뎀의 선택은 사용자
가 선택할 일이나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서
PC에 대해서 조금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내장형
을 선택하고 PC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가격
이 조금 비싸더라도 외장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PC를 통한 정보의 이용

이상으로 모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끝내
고 P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즉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C를 통한 정보의 이용에는 크게 두가지로



일선 도장의
관장이나 사법들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나 통상적으로
그 어려운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서
그러한 것을 이용 할수 있느냐고
반문을 한다.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용자가 정보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정보은행(database)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아보기도 하는 전자 사서함(e-mail)이다. 일례로서 요즘 보편화되어 있는 증권 정보 시스템은 정보은행(database)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천리안Ⅱ PC-Serve 환경 KETEL 엠팔 게시판(Empal BBS) 등이 있다. 본인은 현재 PC-Serve와 환경 KETEL을 이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환경 KETEL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보겠다.

통상적으로 아침에 도장에 나가면 컴퓨터를 키고 수련생관리 프로그램을 작동 시킨 후 지난 가을호에서 설명했듯이 수련생에 대한 모든 것을 체크하고 난 다음 MODEM을 작동시킨다.

처음에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환경 KETEL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약 26가지로서 정보별로 분류를 하면 뉴스정보로서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남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등이 있고 증권 금융정보로서는 증권정보, 증권뉴스, 증권분석정보, 외환시세 등이며 기업정보 및 경제통계정보, 무역정보, 유통물가, 부동산, 세무, 문화레저, 기상정보, 의약정보, 농업정보, 전자사서함 등이 있다.

문화레저 정보에서는 도서정보, 국내관광정보, 해외관광정보, 골프정보, 항공정보 등이 있는데 본인은 주로 뉴스 정보와 날씨, 문화레저,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실 등을 주로 이용한다.

뉴스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는 일반 뉴스매체보다 통상 하루정도 더욱 빠르게는 약 10시간 정도 빠르게 새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상당히 오래된 뉴스기사도 접할 수 있다.

날씨정보는 특히 어떤 야외 행사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에는 매우 필요하며 모든 정보는 프린터로 출력이 되므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화레저 정보에서는 문화행사 및 문화마당 등 문화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정보에서는 각종 새로 나온 도서목록이며 신간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읽을 책의 선별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국내 관광정보에서는 국내여행을 위한 각종 여행상품의 소개는 물론 주요 명승지 및 차원, 숙박시설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자 게시판과 전자사서함의 이용은 전혀 색다른 영역이 아닌가 한다. 전자게시판은 내가 가진 정보나 의견을 써넣음으로써 그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제시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기도 하며 이미 다른사람들이 제시해 놓은 수천 수만건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이
많은 관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본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 당장 컴퓨터를 접해보기 바란다.

있다.

전자 사서함은 편지를 주고 받는 난으로 작성된 모든 편지는 그 즉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각도장간의 정보 교환

현재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전자 사서함을 이용하여 각 도장과 태권도에 관계되는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KETEL 시스템을 이용해서 태권도 동호회를 개설 함으로써 전자 사서함을 이용한 것보다도 더욱더 방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많은 관장님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위에서 나열한 정보들 외에도 사용자 취향에 따른 다른 정보들이 많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위에서 나열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관계되는 서적을 참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의 서적을 참고하지 않으리라 고 본다.

일종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정보 자료는 간단히 키를 누름으로써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서 프랑스에서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프레스텔이라고 불리우는 정보 서비스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만큼 경이적이라고 하

겠다.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랑스 인구는 거의 천만명에 이룬다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로서는 개인용 단말기를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른 구좌에 넣기도 하고 백화점의 물건 판매목록을 찾아보고 그자리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휴가계획을 세울 때에 호텔예약, 기차표구입 등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 이 프레스텔이 프랑스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것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만은 아닐 것이다.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될 아니 상용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일선 도장의 관장이나 사범들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나 통상적으로 그 어려운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서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한다. 지금 까지 5회에 걸쳐 글을 써온 것과 같이 본인의 대답은 한결같다.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고 또 설사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상이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접해야 된다는 것이다.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만 해도 많은 관장님들이 지레 어렵다고 겁부터 내어 컴퓨터를 아예 접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이 많은 관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본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 당장 컴퓨터를 접해보기



이 전자 사서함을
이용하여 각 도장과 태권도에
관계되는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준비중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환경 KETEL에 자신의 ID가 등록이 되어 있는 관장님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ETEL을 이용해 동호회를 개설하고 태권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KETEL에

올려 놓음으로써 각 도장간의 정보 교환을 구상 중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관장님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전화 415-4906, 422-3506

PC 관리 7대 수칙

커피, 콜라 등은 「멀리」, 전원 켜채 이동 「금지」

PC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PC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나 기업과 같이 많은 수의 PC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PC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재해들도 많다. 이런 사항들을 PC사용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PC관리자들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다. 다음의 7개 수칙을 PC 앞에 붙여두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PC 옆에 커피, 콜라 등 음료를 가까이 두어서는 안된다. 키보드와 디스켓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노트북 컴퓨터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

둘째, PC가 있는 방에서는 가급적 금연하라. 담배연기와 재가 장시간 축적되면 키보드, 디스켓, 보드의 칩, 프린터, 헤드 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셋째, 자료디스켓을 정성껏 관리하라. 디스켓은 보관상자에 세운 상태로 넣어서 자장의 영향을 받

지 않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드라이브에 꽂아 놓은 디스켓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빼놓는 것이 좋다.

넷째, 전원을 켜 PC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된다.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하드디스크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충격을 없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한다.

다섯째, 절대로 전원을 켜 PC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빼어내면 안된다. 당장은 고장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섯째, PC의 내부를 만질 때는 먼저 몸의 정전기를 제거하라. 보드나 칩을 직접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직접 다루어야 할 때는 전원공급장치와 같이 접지된 금속에 손을 대서 정전기를 제거한다.

일곱째, 중요한 자료를 백업하라. 아무리 주의해도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의 파괴를 100%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중요한 파일들은 이중, 삼중으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태권도 경기중 부상에 대한 임상적 분석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김병직, 주석규

저자들은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개최한 8개의 전국규모 태권도 대회 총 3859 경기 (남자 3578, 여자 281 경기)에 참가하여 64명의 부상 선수들을 치료하였다.

참가 선수들은 머리, 몸통, 팔, 다리 및 살보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대한 태권도 협회의 규정 에 의거 경기하였다.

부상 선수들은 남자 55명, 여자 9명 등 총 64명 이었고 평균연령은 남자 19.2세, 여자 18세였다.

대부분의 부상(58/64:90.7%)은 경상으로 경기장에서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경기후 병원치료를 요한 부상선수는 열장 2명, 골절 4명으로 총 부상의 9.3%였다.

64례중 61례(95%)의 부상이 보호대가 없는 안면, 목, 손목, 하지 등 노출부위에서 일어났으며, 보호대 착용 부위의 부상은 3례 밖에 없었다.

나이와 체급은 부상률과 일정한 연관성이 없었으며 여자 선수들의 부상률이 높았으나(3.2%:1.5%) 응급처치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저자들은 태권도가 현재의 득점제도와 보호대를 착용하고 엄격한 경기감독하에서 경기를 하면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라 생각되며 Gum shield등 보호대를 더 보강하면 부상률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 론

태권도는 전통민속 무예경기인 택견을 뿌리로

고대 부족사회의 제천 경기에서부터 싹터 삼국시대에 이르러 성행하였다.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는 태권도의 연과과정에 서 두 사람이 서로 겨루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백제에는 남성들이 무기없이 도수공권의 수벽타 싸움을 벌였고 신라 시대에서는 진흥왕이 화랑도를 조직하여 화랑도들이 도수무술로 무예를 수련한 기록이 있다.

이와같이 태권도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 1500년전 중국 소림사에서 기원한 쿵후나 500년전 오키나와에서 기원한 가라테보다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무도스포츠이다.^{1,5)}

고대에는 수박, 택견이라 불리워 전해왔고, 고려와 이조시대에는 수박희로 전해내려오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와 일제의 한민족 탄압이 강화되면서 백성들의 무예수련이 금지되어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 조직의 훈련 방법으로서 택견의 명맥은 이어졌다. 해방후 택견의 부활운동이 시작되어 1961년 대한 태권도협회가 창설되고 1963년에 전국체전의 공식 경기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매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아시안 게임 및 팬암 게임의 정식종목, 서울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시범경기로 채택된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³⁾ 그러나 아직 태권도 경기중의 부상에 대한 문헌 및 자료가 발표된 바가 없었고 저자들이 많은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임상분석을 통해 부상양상을 파악하

고 선수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대 상

1990년 3월부터 1991년 5월까지 대한 태권도 협회가 개최한 전국규모 8개 대회, 3859 경기(남자 3578, 여자 281)에서 부상을 입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64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하였다. 대회 성격은 종별선수권 대회 2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5회와 우수선수 선발대회 1회로 모두 권위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들이었다.

경기 방법

경기는 각 체급별 개인전으로 12m×12m 경기장소에서 3분 3회전으로 진행되며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상대를 바닥에 눌러거나 정확한 공격에 의한 다득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준 격투기(Sem-contact sports)이다. 모든 선수들은 대한 태권도 협회 규정에 의거 머리 보호대, 몸통 보호대, 팔 다리 보호대 및 살보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주먹기술로는 몸통 부위, 발기술로는

얼굴전면과 몸통부위만이 득점 부위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남심을 공격하는 행위는 반칙으로 인정된다.

모든 대회는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경기마다 감독관 1명, 주심 1명과 부심 4명으로 심판원이 구성되며 이들에 의한 경기진행, 득점의 인정, 감점 및 경고로서 경기의 판정이 정해진다.

증례 분석

1. 연령 및 체급 분포

총 3859 경기 중에서 64명의 부상선수가 발생했는데 남자 55명, 여자 9명이었다. 남자 부상 선수 55명의 연령분포는 최하 16세에서 27세까지였으며 18-19세군에서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4세 이상은 27세 선수 1명 뿐이었다(표 1). 평균 연령은 19.2세였다.

체급별로는 핀급에서 헤비급까지 8체급에서 부상선수들이 발생하였다. 체급별 경기수에 대한 부상율을 백분하면 페더급이 0.7%로 가장 적었고 헤비급이 3.6%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령 및 체급별 부상분포(남자)

체급(게임수)	연령					계(부상률)
	16-17	18-19	20-21	22-23	24이상	
핀급(601)	2	4	0	0	0	6(1.0%)
플라이급(497)	3	2	0	2	0	7(1.5%)
밴텀급(641)	4	6	1	2	0	13(2.0%)
페더급(583)	3	1	0	1	0	5(0.7%)
라이트급(399)	0	0	2	1	0	3(1.0%)
웰터급(301)	0	3	1	3	0	7(2.3%)
미들급(294)	1	3	1	1	1	7(2.4%)
헤비급(262)	1	2	2	2	0	7(2.7%)
계(3578)	14	21	7	12	1	55(1.5%)

여자 경기에서는 9명의 부상 선수들이 있었으며 플라이급을 제외한 나머지 체급에서 1명 내지 2명씩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령분포는 17, 18, 19세 선수들만 있었다(표 2). 평균연령은 18세였다.

(표 2) 연령 및 체급별 부상분포(여자)

연령 체급(계입수)	연령			계(부상률)
	17	18	19 이상	
핀급(31)	1	1	0	2(6.5%)
플라이급(44)	0	0	0	0(0%)
밴텀급(46)	1	0	1	2(4.3%)
페더급(43)	0	0	1	1(2.3%)
라이트급(37)	0	1	0	1(0%)
웰터급(31)	0	1	0	1(3.2%)
미들급(28)	0	1	0	1(3.6%)
헤비급(21)	0	1	0	1(4.8%)
계(281)	2	5	2	9(3.2%)

2. 부상종류

총 64례의 부상 중 몸통 부위 부상은 없었으며 모든 부상은 두경부, 상지, 하지에 있었으며 남자 선수들에서 각각 18, 18, 19례씩 있었다. 가장 많은 남자 선수들의 부상은 열창으로서 18례 있었고 이 중 10례가 두경부의 열창이었다. 두경부에서 10례의 열창은 구순열창이었고 그외 비출혈 6례 및 좌상 2례가 있었다. 상지에서는 18례의 부상이 있었는데 좌상이 6례로 다른 부위보다 많았으며 전체 5례의 골절 및 탈구 중 5례전부가 상지에서 일어났다. 그의 상지에서 엄좌 5례와 수부 열창이 2례 있었다. 하지의 부상은 전체 19례 있었으며 이 중 10례가 엄좌로서 주로 족관절 및 족근중족관절의 엄좌였다. 하지에서 골절은 없었으나 열창이 6례, 엄좌가 3례가 있었다(표 3).

여자선수들 중에서는 총 9례의 부상이 두경부, 상지, 하지에 각각 3례씩 있었으며 비출혈 2례, 좌상 1례, 열창 2례 및 엄좌 4례가 발생하였고 골절 탈구는 없었다(표 4).

(표3) 부상의 위치 및 유형(남자)

	비출혈(코피)	좌상(타박상)	열창(찢어짐)	엄좌(뺨)	골절 탈구	계
두경부	6	2	10	0	0	18
상지	0	6(2)	2	5	5(1)	18
하지	0	3	6	10	0	19
계	6	11	18	15	5	

(표4) 부상의 위치 및 유형(여자)

	비출혈(코피)	좌상(타박상)	열창(찢어짐)	엄좌(뺨)	골절 탈구	계
두경부	2	0	1	0	0	3
상지	0	1	0	2	0	3
하지	0	0	1	2	0	3
계	2	1	2	4	0	9

남자선수부상 55례중 2례의 상지좌상 및 1례의 상지골절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부위에 발생했으며 52례가 노출부위에서 발생했다. 여자선수들에서는 모두 노출부위의 부상이었다.

3. 경기후 진료를 요한 부상

총 64명의 부상중 6명만 경기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18례의 열창중 상처가 깊었던 2명, 척골골절 1례와 3명의 선수에서 발생한 중수골 골절 4례이었다. 모두 남자선수에서 발생했으며 여자선수에서는 없었다(표 5).

(표5) 병원진료를 요한 부상

부상의 종류	부상자	진료
열창	2	일차봉합
골절	4	X-선 촬영과 부목고정
계	6	

4. 경기회수에 대한 환자 비율

남자 3578 경기중 216 경기가 결승 및 준결승 경기였다. 이중 10명의 부상선수가 발생하여 매경기당 4.63%의 부상률을 나타냈고 1회전에서 준준결승까지의 3362 경기에서는 45명의 부상선수가 있어 매경기당 1.34%의 부상률을 나타냈다(표 6).

(표 6) 회전별 부상률(남자)

경기	가입수	부상자수	부상률
1회부터 준결승 결승과	3362	45	1.34%
준결승	216	10	4.63%
	3578	55	1.54%

결과 및 고찰

동양무술 중에서 2000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태권도가 단순 민속무예 경기에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게 된 것은 불과 20-30년 밖에 안된다.

1961년 대한 태권도 협회 창립과 1963년 전국 체전 공식경기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경기규칙과 객관적인 득점체계가 정립됐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경기중 보호대를 착용하게 됐고 태권도보급이 활성화됐다.^{1, 2, 5)}

현재 태권도는 세계 120 개국에 3000만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과 팬아메리칸 게임의 공식 경기, 서울과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범 경기로 채택되었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목전에 둔 매우 인기있는 현대 스포츠로 발전했다.^{1, 3)}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다. 태권도는 수련자에게 신체운동, 맨몸투기, 현대스포츠 및 교육으로서 존재하며 현대 스포츠로는 맨몸투기로서 인명에 미칠 피해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과학적인 경기 규칙과 보호용구를 개발하여 각광받는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태권도의 기술에는 품새, 겨루기, 경기 및 격파가 있으며 경기는 태권도의 공격기술 중에서 주먹 지르기 및 발차기만을 사용하고 몸의 전면만을 공격하되 얼굴 공격은 발만 사용하며 복부아래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더우기 머리보호대, 몸통호구, 살보호대, 팔·다리 보호대 등으로 경기중 인체 상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³⁾

또한 성장철의 3인의 보고에 의하면 태권도를 수련하면 두개골 골반 및 사지의 골밀도를 증가시켜 성인에서 계속 운동하면 골조송증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 하였다⁴⁾.

대상선수들은 최소한 2-3년 경험이 있는 유단자들이었다. 대회성격은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2회와 국가대표선발대회 5회 및 우수선수 선발대회 1

태권도의 공격은 주로 발기술이기 때문에 족관절과 족부에 가해지는 충격과 운동량이 많아 이부위의 염좌가 많으며 맨발로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족부의 열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한 수부 및 족부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경기전 족부에 붕대를 감음으로써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로서 전국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한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들이었다. 격투기를 full contact, semicontact 및 non contact로 구분하였을 때 태권도는 semi contact sport에 구분되며 득점이라는 가정요인과 반칙을 통해 주어지는 감점요인의 가감총합의 비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또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머리, 몸통, 살보대 및 팔 다리 보호대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어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로 생각된다. 실제로 태권도와 유사하나 보호대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가라데의 경우 McLutchie는 Knock down제 가라데 대회에서 70명 선수 중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5명이 심각한 부상으로 경기를 중단해야 했다고 보고 하였고 Stricevic도 309 경기 중 82례의 부상이 있었으며 79%의 부상이 주먹으로 가격받아 발생했다 하였다^{7, 8, 9}.

저자들의 경우 태권도 경기에서 남자의 경우 불과 55명(1.5%) 여자는 9명(3.2%)의 부상선수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가벼운 부상으로 6명의 선수만이 병원 치료를 요했다.

선수들은 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팀 소속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등이 가장 활발

한 선수층 이었기에 부상 선수들의 평균연령이 19.2세 밖에 안됐다. 여자선수들은 실업팀이 없었고 소수의 대학교팀 외에는 대부분이 고등학교팀 소속으로 남자선수보다 더 낮은 18.0세의 평균연령을 나타냈다.

체급별로는 남녀선수 모두 중량급 보다는 경량급 선수들이 많았으며 부상률은 케타급과 라이트급에서 0.7%와 1%로 가장 낮았으나 더 가벼운 플라이급 및 밴텀급과 무거운 미들, 헤비급에서도 높은 부상률을 나타내 체급별로는 일정한 연관성이 없었다.

전체 64명의 부상 선수 중 55명의 남자 선수들은 두경부 18, 상지 18, 하지 19례의 부상을 입었다. 이중 3명을 제외한 52명은 노출부위의 부상으로 두경부에서 비출혈 6례, 구순 열창이 10례있었다. 상지에서는 열창은 적었으나 척골 골절 1례와 중수골 골절이 3명의 환자에서 4례있었다. 하지에서는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던 반면 족관절과 족근 중족 관절의 염좌가 10례나 있었다. 두경부에서는 18례 중 16례가 안면부 부상으로 안면부 보호를 위해 머리보호대 외에 gum shield, face guard 등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7, 8, 9}. 문명상의 3인의 보고에 의하면 태권도 부상(훈련중 및 경기중)으로 인한 68례의 골절중 88%가 상지 골절, 또한 전체의 50%가 중수골 골절이었다고 밝혔다²⁰.

저자들의 경우도 경기중 골절은 모두 상지에서 일어났으며 1례를 제외한 4례가 중수골에서 일어났다. 경기중 수부 골절이 많은 것은 중량이 무거운 하지의 골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리라 생각된다. 하지에서는 족관절과 족근중족관절의 염좌와 열창이 많이 발생하였다. 태권도의 공격은 주로 발기술이기 때문에 족관절과 족부에 가해지는 충격과 운동량이 많아 이부위의 염좌가 많으며 맨발로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족부의 열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한 수부 및 족부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경기전 족부에 붕대를 감음으로써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

로 생각된다⁶⁾.

부상의 정도는 대부분 경미하여 경기장에서 간단한 처치로 가능했으며 6례만 병원 치료를 요했다. 병원치료를 받은 선수들도 일차 봉합술이나 X-선 촬영후 부목 고정만 받았다.

결승과 준결승의 경기와 1회전부터 준결승전까지의 경기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4.63%로 후자의 1.34%보다 부상률이 약 3배나 높았다. McLatchie⁸⁾는 가라테에서 대부분의 부상이 실력이 낮은 선수에서 특히 오전에 많은 부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저자들의 경우 대상 선수들은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었고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 결승전과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서로 비슷한 우수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어 누구나 우승을 하여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올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여 결승과 준결승전에서 부상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저자들은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개최한 8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총 3859게임에 참가하여 부상선수들을 진료하여 임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태권도는 완전 격투기가 아닌 득점제로 승패를 정하고 머리, 몸통, 팔, 다리 및 살보대를 의무화한 운동으로 경기 중 부상률이 매우 낮은 스포츠이다.

저자들은 엄정한 경기 감독하에 현재의 득점제와 보호장비를 착용한 태권도 대회는 참가선수의 부상이 적은 안전한 스포츠이나, 선수 보호차원에서 태권도 정신과 경기력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안면부, 수부 및 족부의 보호장비를 보강하면 더욱 많은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대한 태권도 협회 : 대한 체육회 70년사 서울, Korea Herald, 1990.

2) 문명상, 이인기, 진교진, 이장정 : 무술 "태권도"에 의한 손상.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 691-698, 1984.

3)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태권도 경기본부 : 태권도, 서울, 1988.

4) 성상철, 김원중, 이명철, 조장원 : 태권도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제24권, 제6호 : 1548-1552, 1989.

5) 이교윤 : 표준 태권도 교본, pp. 21-36, pp. 231-247, 서울, 일신서적공사, 1987.

6) Dirix, A., Knuttgen, H.G. and Tittel, K. : The Olympic Book of Sports Medicine, pp. 403-444, London,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88.

7) McLatchie, G.R. : Analysis of karate injuries sustained in 295 contests. Injury, 8 : 132-134, 1976.

8) McLatchie, G.R., Davies, J.E. and Caulley, J.H. : Injuries in Karate-A case for Medical Control. The Journal of Trauma, 20 : 956-958.

9) Striceric, M.V., Patel, M.R., Okagaki, T. and Swain, B.K. : Karate : Historical perspective and injuries sustain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nament competi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1 : 320-324, 1983.

*본문은 대한스포츠학회지 제10권 제1회(1992. 1월호)에 발표됐으며, 1992년 5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스포츠 의상학회에서 구연될 예정이다.

저자 · 김병직

1941년생

196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졸업, 정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서울백병원 부원장

행 사 기 록

표 창

'92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식
(92.1.25,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



(서울시협회)

▲우수도장상

장용갑(정우체육관)

최문오(중앙체육관)

▲지도상

전판선(광희국민학교)

▲경기상: 권태호(경희대학교)

(부산협회)

▲우수도장상

윤성노(구포체육관)

▲지도상

박창용(동명전문대학)

▲경기상: 김제경(동아대학교)

(대구협회)

▲우수도장상

장한걸(송무체육관)

▲지도상

이준명(경상공업고등학교)

▲경기상: 김건일(계명대학교)

(인천협회)

▲우수도장상

김동진(우람체육관)

▲지도상

박수복(인천전문대학)

▲경기상

박경화(인천전문대학)

(광주협회)

▲우수도장상

박세영(한국체육관)

▲지도상

김재천(국제고등학교)

▲경기상: 이계행(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

(대전협회)

▲우수도장상

윤성기(원도 체육관)

▲지도상: 오노균(오현체육관)

▲경기상: 황일선(충남대학교)

(경기도협회)

▲우수도장상

강 훈(충무체육관)

▲지도상

정판진(정명고등학교)

▲경기상: 이순영(고양여자중

합고등학교)

(강원도협회)

▲우수도장상

황보봉선(한서체육관)

▲지도상: 박병철(횡성군청)

▲경기상: 박만성(횡성군청)

(충북협회)

▲우수도장상

김상문(서부체육관)

▲지도상: 정해열(이월중학교)

▲경기상: 신경수(청주대학교)

(충남협회)

▲우수도장상

서인원(푸른체육관)

▲지도상

김나중(천안중앙고등학교)

▲경기상

최성진(천안중앙고등학교)

(전북협회)

▲우수도장상

- 전철기(나주체육관)
▲지도상
 고봉수(전북태권도협회)
▲경기상
 이정원(전북태권도협회)
(전남협회)
▲우수도장상
 이창규(나주체육관)
▲지도상
 최공집(전남태권도협회)
▲경기상
 양재훈(전남태권도협회)
(경북협회)
▲우수도장상
 조용구(문경체육관)
▲지도상: 신기철(봉양중학교)
▲경기상
 서정호(영천고등학교)
(경남협회)
▲우수도장상
 김정철(삼천포체육관)
▲지도상: 조현새(구암중학교)
▲경기상
 진승태(경남체육고등학교)
(제주도협회)
▲우수도장상
 김완기(상무체육관)
▲지도상: 오선홍(함덕중학교)
▲경기상
 성의천(국군체육부대)
(대학연맹)
▲지도상: 김우규(동아대학교)
▲경기상: 임영호(경희대학교)
(중교연맹)
▲지도상

- 박영수(리라공업고등학교)
▲경기상
 김정규(선인고등학교)
(국교연맹)
▲지도상
 김종윤(서원국민학교)
▲경기상
 최유리(강덕국민학교)

임명

'92 상임심판원



- ▲심판분과 위원장**: 고철성
▲심판분과 부위원장
 김용길 심명구
▲심판분과위원: 장세백
 장창영 오수근 최복현 강석환
 장명수 이천수 송우길 최정호
▲감독관
 문창남 홍정부 맹만호 이규현
 최중수 조호철 박종명 조한우
 김강인 유문규 김기용 장용갑
▲심판위원
 이종관 유백만 이종찬 박종률

- 노달선 한상진 김경찬 양주호
 이천수 김명환 최봉호 박홍신
 안태연 김원기 장세백 최정호
 이종근 장창영 김현수 이봉학
 정성식 오수근 이규중 최복현
 강석환 민준원 김혜연 김갑식
 박광일 김현성 공영목 김경호
 홍연화 김영현 양희정 양천석
 문찬석 윤영미 홍진국 송우길
 김홍삼 나창흠 박경선 장명수
 차철춘

사범

제70기 태권도지도자 교육 수료자 (92.2.21-29,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 임국현 이한상 송동성 권문현
 백순흠 안성준 정병진 양현모
 구태훈 김종성 정병계 장기봉
 박해선 김란희 김동진 강주환
 김유홍 정의철 장경수 박승현
 허만오 조영진 정인호 박찬길
 정준섭 안창규 정창수 지이현

김정모 김길호 신동윤 주운룡

최인호 이정미 최수현 안중선
 신성식 김종일 박준우 공영규
 최석기 김기상 안종호 배대식
 유상진 이석근 문달준 고율규
 김정학 이은미 김영관 허용욱
 송창경 유혜성 금동규 김성식
 전호길 황광천 서민학 황순남
 광태민 나근호 백승근 양대승
 한진수 김현기 오종간 이상원
 조관형 손창섭 고봉근 김명식
 한규영 강익진 노정효 한상영
 송상렬 유운식 허남욱 배종임
 박은현 차석봉 배용원 류경동
 박재서 조영섭 이상국 남택규
 연준호 이시용 손지희 최재민
 고현정 광환성 이태영 진창우
 김도래 진대식 유완순 이상수
 김대성 박성진 이재섭 이종진
 전제성 강시종 한지훈 김경수
 신재식 김한수 송창섭 최규하
 장영호 김도훈 제갈 호 임병완
 장길표 민경신 양영명 김길호
 정옥화 김기봉 김규연 김하성
 노기호 박문철 신병철 윤상혁
 윤만철 최이철 김진해 방경애
 오형남 이재춘 문웅선 박필복
 윤종필 이창석 정해준 문희동
 이덕용 김상태 이재정 김재홍
 조정희 이수일 허승영 류황국
 염명옥 이상배 양성택 노윤환
 정철호 한경수 김덕원 박진경
 이점수 한명숙 하정운 한창호
 최철수 이찬우 유후근 김종선

표성국 박상철 이종희 오광현

국제대회

제10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 대회
 (9.21.31-2.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남자부)

▲핀급

- 1위 : Chang Jung-San (중화대북)
- 2위 : 진승태 (한국)
- 3위 : Kumar S/O Sand Ragasam (말레이시아)
John Suharto no (인도네시아)

▲플라이급

- 1위 : 서성교 (한국)
- 2위 : Dirc Richard (인도네시아)
- 3위 : Khalid A.M.Al-hubaidan (쿠웨이트)
Lin Yeong-Cheng

(중화대북)

▲밴텀급

- 1위 : 권태호 (한국)
- 2위 : Hussien Makki (요르단)
- 3위 : Asghar Tamma sebi (이란)
Yeung Wai Kwan (홍콩)

▲페더급

- 1위 : 강창모 (한국)
- 2위 : Chou Kuei Ming (중화대북)
- 3위 : Khaleed H.A.Al-Shamrani (사우디아라비아)
Bijan Mough-Anlou (이란)

▲라이트급

- 1위 : Faribourz Askari (이란)
- 2위 : Bandar M.A.Al-gammez (사우디아라비아)
- 3위 : Dassartyo Prihadi (인도네시아)
Victor Emm anuel Veneracation (필리핀)

▲웰터급

- 1위 : 임영호 (한국)
- 2위 : Liu Tsu Jen (중화대북)
- 3위 : Nigel Anderson (호주)
Ali-Moha, Boushagh (이란)

▲미들급

- 1위 : 윤순철(한국)
- 2위 : Ho Ming Hsiung(중화대북)
- 3위 : Seyed Hossein Abbasi(이란)
Khaled F.Al Harthi(사우디아라비아)

▲헤비급

- 1위 : 김재경(국군체육부대)
- 2위 : Hassan Aslani(이란)
- 3위 : Wu Pao-Yi(중화대북)
Apolonis Cen Tron, JR(필리핀)

(여자부)

▲핀급

- 1위 : 이순영(한국)
- 2위 : Lo Yueh-Ying(중화대북)
- 3위 : Vasugi Maruthamuthu(말레이시아)
Sita Kumari Rai(네팔)

▲플라이급

- 1위 : 모선영(한국)
- 2위 : Tang Hui-Wen(중화대북)
- 3위 : Wong Liang Ming(싱가포르)
Anita Fa Lieros(오스트랄리아)

▲밴텀급

- 1위 : 원선진(한국)
- 2위 : Chen Mei Hua(중화대

북)

- 3위 : Vicki Cenere(호주)
Ma, Nelia Sy(필리핀)

▲페더급

- 1위 : Liu Chao Ching(중화대북)
- 2위 : 김성숙(한국)
- 3위 : Beatriz Lucero(필리핀)
Su Su HLAING(미얀마)

▲라이트급

- 1위 : 정은옥(한국)
- 2위 : Hsien Feng-Lien(중화대북)
- 3위 : Ma Lourdes Go(필리핀)
Donna Sc Herp(뉴질랜드)

▲웰터급

- 1위 : Pan Li-Chi(중화대북)
- 2위 : Susilawati(인도네시아)
- 3위 : Catherine Ditan(필리핀)
Foo Yong Lai(싱가포르)

▲미들급

- 1위 : 이선희(한국)
- 2위 : Lau Choo Boon(말레이시아)
- 3위 : Julie Phillips(호주)
Anis Dewi(인도네시아)

▲헤비급

- 1위 : Sarah Chung Pit Jin(말레이시아)
- 2위 : 정명숙(한국)
- 3위 : Beatriz Daphne Tios eco(필리핀)
Susan Graham(뉴질랜드)

(종합성적)

▲남자부

- 1위 : 한국(금6 은1)
- 2위 : 중화대북(금1 은3 동2)
- 3위 : 이란(금1 은1 동4)
- 4위 : 사우디아라비아(은1 동2)
- 5위 : 필리핀(동2)

▲여자부

- 1위 : 한국(금5 은2)
- 2위 : 중화대북(금2 은4)
- 3위 : 말레이시아(금1 은1 동1)
- 4위 : 필리핀(동5)
- 5위 : 인도네시아(은1 동1)

국내대회

제25회 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92.3.10-11, 국기원)



(남자부)

▲플라이급

- 1위 : 서성교(한체대)
- 2위 : 진승태(한체대)
- 3위 : 임창섭(상 무)
박재성(한체대)

▲페더급

- 1위 : 김병철(상 무)
- 2위 : 권태호(경희대)
- 3위 : 강창모(부산체육회)
남학현(상 무)

▲웰터급

- 1위 : 하태경(춘천군청)
- 2위 : 임영호(경희대)

- 3위 : 박의성(한체대)

▲헤비급

- 1위 : 김제경(상 무)
- 2위 : 박종범(한체대)
- 3위 : 윤순철(상 무)
김현일(상 무)

(여자부)

▲핀급

- 1위 : 모선영(한체대)
- 2위 : 김진성(송고고)
- 3위 : 이순영(고양종고)

▲밴텀급

- 1위 : 황은숙(상명여대)

- 2위 : 원선진(효원고)

- 3위 : 김성숙(성신여대)

▲라이트급

- 1위 : 정은옥
- 2위 : 김경애(대한체육과학대
학)

▲미들급

- 1위 : 이선희(대한체육과학대
학)
- 2위 : 정명숙(혜성여고)
- 3위 : 박상희(리라공고)
윤현정(대한체육과학대
학)



행사 안내

- | | | |
|-----------------------------------------|-------------------------------------|-----------------------------------|
| 4.6-10: '92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고등부(펜싱 경기장) | 대회경 제3회 세계대 학생선수권대회 한국대 효선수선발전(국기원) | 기원) |
| 4.14-16: '92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일반부(국기원) | 4.29-5.2: 제2회 대한체육과학 대학 학장기(국기원) | 5.9-10: 제13회 어린이태권왕 겨루기 전국국민학교 대회 |
| 4.20-26: 사담 국제 태권도 선수권대회(이라크, 바그다드) | 4-월: 미구교국순회 태권도시범(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5.13-14: '92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국기원) |
| 4.23-28: 제19회 전국대학개인 | 5.6-15: 제71기 지도자교육(국 | 5.20-23: 제1회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아르헨티나) |
| | | 5.25-30: 제19회 중고연맹회장기(잠실학생체육관) |

제1회 협회장기 품새 및 시범경연대회

12월 펜싱 경기장서 개최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한국을 대변해온 태권도가 무도본연의 자세를 되찾기위해 경기인을 포함한 2백 50만 국내수련자 전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대한태권도 협회는 초, 중, 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로 나눠 체급우승자를 가리는 협회장기 대회를 현재와 같은 겨루기 방식에서 탈피, 올해부터 품새와 특기로 부문을 나눠 새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협회는 또 등록 선수만이 대

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제한 규정도 이대회에 한해서 철폐, 일선도장과 각급학교, 혹은 독자적으로 품새를 익히거나 가르쳐온 수련자와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같은 대회운영 방식전환은 61년 협회가 창설된 이래 30년만에 처음. 따라서 태권도가 가진 무도적 측면을 확대,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이 대회는 품새경연과 특기부문으로 치러지는데 품새경연부문은 저품, 저단자의 경우 품새의 형을 시연함으로써 기본적인 태권도동작의 완벽한 습

득을 겨루고 고단자는 스스로 새로운 품새를 창안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기부문은 고난도의 발차기와 격파 등을 통해 스포츠를 떠난 무예로서의 본모습을 확인하는 종목이어서 치고불는 단순한 경기내용에 식상해온 일반관중들에게 무도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또 경기방식의 관중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품새경연의 경우 심판진이 현장에서 직접점수를 게시토록하고 격파의 경우 개진 벽돌이나 나무판자의 숫자로 관중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1월 12일 자>

'91년도 결산이사회 개최

('92. 2. 11, 육군회관)

The Executive Council Meeting

최세창회장을 비롯한 이사 16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산이사회에서는 '91년도의 예산 7억8천8백여만원을 의결하고 올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예산액으로 전년도보다 14%증가된 8억8천7백여만원을 의결했다.



▲이사회 임원들



▲'91년도 사업결산보고와 '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보고하는 강원의 권무이사



▲감사보고를 하는 송봉섭감사

'02년도 정기대의원총회

('02. 2. 17.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대한태권도협회는 0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01년도 사업결산과 02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협회는 02년도 사업으로 태권도를 전국인의 생활체육으로 확대시키기위해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대회를 거꾸기 방식에서 팔피, 율해부터 품새, 격파, 특기부문 및 장안 품새부문 경연방식으로 처분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태권도의 직접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체전에 북한시범단의 초청 협관과 시범대회를 함께할 계획이다.



▲최세창회장(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보고로 불참, 홍종수부회장이 의장대행으로 회의를 구재했다.



▶ 시도지부 및 연맹의 대의원들이 안전도위에 앞서 엄숙히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92바르셀로나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92. 3. 10~11, 국기원)

The Selectional of Korean National Player for
'92 Barcelona Olympiad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태권도
경기에 파견될 국가대표 남녀 각 4체급, 8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평가전은 높아진 대표팀 문턱탓인지 예년의 선발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할 남녀 국가대표 · 남자부 서성교(플라이) 김병철(페더) 하태경(웰터) 김재경(헤비) 여자부 모선영(편) 황은숙(밴텀) 정은옥(라이트) 이선희(미들)



◀남자대표 4명중 2명의 대표가 삼부팀에서 나왔다.

제10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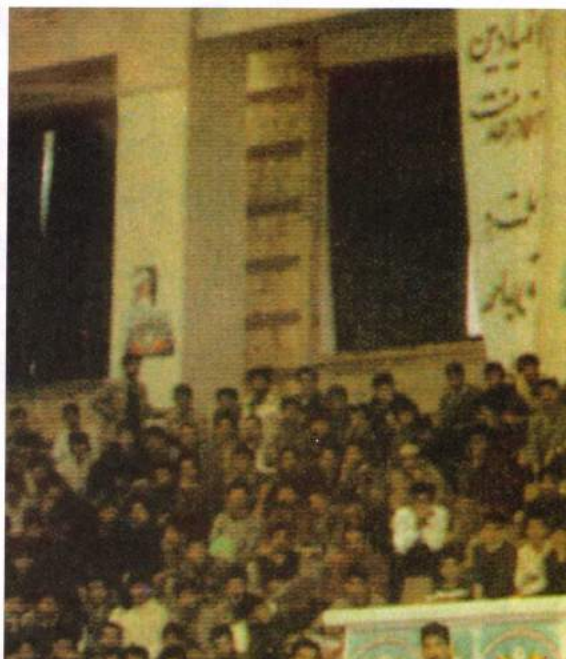
('92. 1. 31~2. 2,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The 10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18개국 175명의 선수가 참가해 3일간의 열전을 펼친 끝에 남자는 금6 은1, 여자는 금5 은2를 따내며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여자부는 기술과 정신력으로 중화대륙을 물리치며 지난 90년 9회 대회에서의 참패를 설욕했다.



▲한계수단장(인천직한시협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는 최세창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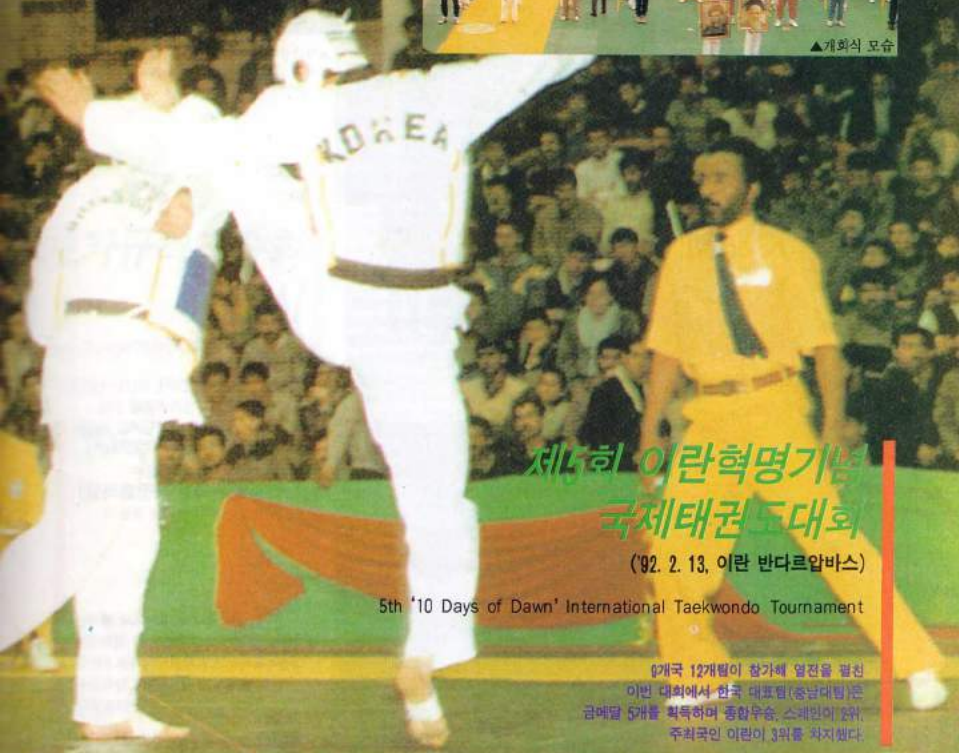


▲한국대표선수단





▲개회식 모습



제5회 이란혁명기념 국제태권도대회

('92. 2. 13, 이란 반다르압바스)

5th '10 Days of Dawn' International Taekwondo Tournament

6개국 12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충남대팀)은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 스페인이 2위,
주최국인 이란이 3위를 차지했다.

'92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식

('92. 3. 11, 국기원)

Letter of Appreciation Awarding Ceremony
by KTA

태권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에서 최세창회장은 우수도장장, 우수선수상, 지도상 등 3개부문의 수상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최세창회장이 장용갑관장(서울정우체육관)에게 우수도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영광의 수상자들



장학금수여

('92. 1. 25,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91년도 국내의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중고교선수 및 경희대와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생 6명 등 총 28명에게 51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최세창회장

기술심의회 (의장 김인석) 임원 임명장 수여식

('02. 1. 25, 올림픽회관 중회의실)

The Awarding Ceremony of
the Diploma for the Members
of the Technical Committee

02년도의 각종사업의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술심의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최세창회장은 11개분과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총 3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태권도 기술의 발전과 생활체육확산을 위해 승진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석 기술심의회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최세창회장

경기규칙강습회 실시

The Competition Rules Seminnar

1차(2.20~21)와 2차(2.25~26)로 두차례에 걸쳐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규칙강습회에는 총 379명이 참가하는 높은 열기를 보여 주었다.
이틀간씩 실시된 이번 교육은 경기규칙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을 높이는 강좌가 마련되었다.



▶ 서울신문 고두현기자가 "패어플레이정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